이투데이

ECONOMY TODAY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etoday.co.kr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코스피(14일)

2427.91(+31.22P) **894.17**(+5.73P)

환율(달러당 원화)

금리(국고채 3년물) **1183.50**(-3.40원) **0.919%**(-0.007%P)

하루 칩인 3번⋯이미림 메이저 첫 승 ፟፟፟፟፟፟፟፟፟፟፟፟

빅테크와 협력···권광석 행장 '디지털' 승부수 **᠑**

〈금융위원장〉

국책銀 '억대 명퇴금' 맞장구 친 은성수

기재부 '형평성' 이유 반대에도 '임피제 줄소송' 돈 더 달라는 직원 殷 "직원 고령화 해소·청년 일자리 창출 위해 명퇴제 현실화 필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박홍배 더불어민 주당 노동부문 최고위원 겸 전국금융산업 노동조합 위원장과 국책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명예퇴직제를 현실화하겠다"는 입장 을 밝혔다. 국책은행의 고질적인 고령화 구조 문제를 해소하면서 청년 일자리까지 만들 수 있다는 명분이다. 예산을 총괄하 는 기획재정부는 세금이 추가로 동원되는 퇴직금 상향 조정에 반대하고 있다. 명예 퇴직이 신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여 타 공기업과 형평성 문제와 함께 퇴직자들 에게 두둑한 퇴직금만 챙겨주는 상황만 초 래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제2474호

국책은행과 급여조건이 비슷한 시중은행 의 경우 월평균 임금의 36개월 (3년)치에 해 당하는 특별 위로금과 자녀학자금 지원 같은 혜택을 준다. 올하반기에는 은행권 시니어노 조가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및 임금 삭감분 반환 청구와 관련한 소송이 잇따라 예정돼 있 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재 정지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인사적체 해결 을 위해 민간수준의 명예퇴직제를 도입하는 논의가 동떨어진 현실인식이란 지적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지난 달 박홍배 최고위원, 국책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명예퇴직제를 현실화하고, 임금피크 제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국책은행 관계자들은 임금피크 제로 인한 직원 고령화에 따른 기관의 생 산성 저하, 신규 채용 여력 감소 등 부작용 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명예퇴직 제의 퇴직금을 현실화해 고령 직원들의 빈 자리를 신규 직원이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에도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 회 위원장 주재로 기재부와 금융위, 국책은 **임금피크제 직원 비율** (단위 : %), 2018년 2022년 11.1 6.7 3.6 산업은행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일정 연령 도달 이후 임금을 하향 조정하는 제도

행 핵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명예퇴 직제 개편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국책은행 관계자들은 명예퇴직자의 퇴직금 조건을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신규 일자리 창출의 대안이라며 개선안을 설명했다. 현 재 국책은행의 희망퇴직금 구조는 임금피 크제 적용 이후 임금의 45%로 제한했다. 통상 시중은행 명예퇴직금의 20~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문 위원장은 "현재 시행 중인 임금피크 제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니 이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단기적이 든장기적이든,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해 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명 예퇴직제 개편에 소극적이다. 기재부 관계 자는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때문에 국 책은행만 조건을 높이는 것을 불가능하 다"고 했다. 기재부는 국책은행에 명예퇴 직제 퇴직금 조건을 높일 경우, 형평성 논 란을 막기 위해 타 공공기관 퇴직금 산정 조건 역시 개편해야 하지만 퇴직금 비용을 충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는 최종구 전 위원장 시절부터 명예퇴직제 현실화를 추진해왔다. 최 전 위 원장은 시중은행장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규모와 대상, 시기를 대폭 확대해 청년층 신 규일자리를 늘려 달라"고 주문했고, 청년일 자리 해법으로 상시희망퇴직제 카드를 제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초부터 기재부와 임금피크제, 명예퇴직제 관련해 논의를 이어 오고 있지만 특별한 해법이 나오지 않은 상 황"이라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스가 요시히데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당선 도쿄/AFP연합뉴스 직후 손을 흔들고 있다.

막오른 日 '스가시대'

자민당 총재 당선…내일 총리 취임

이변은 없었다.

스가 요시히데(71) 일본 관방장관이 14 일 '포스트 아베'를 선출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16일 소집되는 임시 국회에서 제99대 총 리로 선출되면 '스가 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이 오른다. 2012년 12월 26일 아베 신 조 총리가 취임한 후 7년 8개월여 만의 총 ▶관련기사 4·5면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14일 실시한 총재 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차기 총재로 선출했다.

압도적 표차였다. 자민당 소속 국회의 원 394명과 자민당 도도부현(광역자치단 체) 지부연합회 대표 141명 등 총 535명 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는데, 스가는 유효 표 534표 중 377표를 얻었다. 스가와 함 께 선거에 출마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 장은 68표,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은 89 표에 그쳤다.

앞서 자민당은 아베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표명하자 하루라도 빨리 부담을 줄여 조속히 체제를 확립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 그의 후임을 뽑는 당 대 표 선거를 약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당 규 정에 따르면 총재가 임기 도중 사임할 때 는 양원과 당원이 참여하는 투표로 새 총 재를 선출하게 돼 있지만, 긴급한 상황일 경우 선거 없이 양원 총회로 후임자를 뽑 을 수 있다.

스가의 총재 당선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 다. 양원 총회 방식은 국회의원 표의 영향 력이 큰데, 스가가 일찍부터 높은 국회의 원 지지율을 확보하면서 '스가 대망론'이 부상했다. 스가는 파벌이 없지만, 8년 가 까이 관방장관으로 활동하면서 측근 그룹 을 형성했고, 당내 최대인 호소다파 등 주 요 파벌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기세를 굳 혔다. 지난해 새 연호 발표 후 '레이와 오 지상(레이와 아저씨)'이라는 별명으로 대 중에도 친숙한 이미지를 쌓았다.

원래 자민당 총재 임기는 3년이지만, 새 로운 총재의 임기는 아베 총리의 임기를 이 어받는 것이어서 2021년 9월 말 끝난다.

일본 언론은 스가가 정권 출범 이후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이와 여론 동향을 살피면서 중의원 해 산 및 조기 총선 시기를 엿볼 것으로 전망 한다. 총선에서 자민당이 대승하면 스가 의 연임 가능성도 커진다.

거리두기 2단계…활기 띤 커피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4일부터 '2단계'로 완화되면서 PC방, 음식점·제과점, 카페, 학원 등의 정상 영업 및 운영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내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안에서 시민들이 음료를 마시고 있다. ▶관련기사 2·12면 고이란 기자 photoeran@

〈신세계 총괄사장〉

〈라이브커머스〉

'라방' …실크우드 이어 '스튜디오329' 품었다

지분 55.13% 45.2억에 사들여 '미디어+커머스' 사업 잰걸음 첫 분기 적자에 '자존심 회복' 의지

정유경〈사진〉 신세계 총괄사장이 스튜 디오329를 품에 안았다. 재계는 '유통명 가'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급성장하는 라 이브커머스(라방)와 미디어 사업에서 새 로운기회를찾으려는 발걸음으로

해석한다. ▶관련기사 3면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 르면 신세계 자회사인 마인드마 크는 7일 스튜디오329 지분 55.13%(16만7962주)를 45 억2000만 원에 사들였다.

신세계가 올해 4월 269억

원을 출자해 만든 커머스 전문 콘텐츠 제 작사 마인드마크의 두 번째 인수・합병이 다. 한국형 뷰티 편집숍 '시코르'를 성공적 으로 안착시킨 김은 대표(전 신세계 상 무)가 맡고 있다. 고광후 신세계 기획전략 본부장(부사장)도 사내이사로 활동 중이 다. '마인드마크'라는 사명에는 정 총괄사 장의 경영철학이 담겨 있다. 정 총괄사장 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백화점은 단순히

> 물건만 판매하는 곳이 아닌 다양한 차별화 콘텐츠로 고객에게 기억 될 수 있는 마인드마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 > 마인드마크가 인수한 스튜 디오329는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 '탑매니지먼트'를비 롯해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된 '인간수업'의 제작사로 잘 알려진 곳이다. 이 회사의 윤신애 대표는 인기 드 라마 '해신', '개와 늑대의 시간', '육룡이 나르샤' 등을 만들었다.

업계는 '은둔의 경영자'라고 불리던 정 총괄사장이 최근 적극적 인수합병(M&A)에 나선 것을 두고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공격적 발걸음으로 해석한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급성장한 라이브커머스와 미 디어 시장을 빨리 손에 넣으려 한다는 것 이다.

6월 30일 실크우드 지분 58.05% (166만836주)를 매입한 지 두 달여 만에 또 사들였다는 점이 이를 짐작하게 한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미디어와 커머 스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합하는 과정에 서 기존 유통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만한 미디어 콘텐츠 구상 강화 차원의 인 수 결정"이라며 "향후 유튜브 등 이커머스 콘텐츠 제작 때 드라마 수준의 질 높은 영 상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인력들을 갖추는 단계"라고 말했다.

업계는 생채기가 난 자존심을 회복하려 는의도로도해석한다. '유통명가'인 신세 계는 2분기 사상 첫 분기 적자를 냈다. 연 결기준 486억 원의 손실을 내 적자 전환했 다. 신세계의 분기 적자는 2011년 5월 이 마트와 분리해 실적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 후처음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 총괄사장으로서는 코 로나19등으로 오프라인 경영환경이 갈수 록 악화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 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변효선 기자 hsbyun@

자세 낮춘 추미애 "아들 軍 의혹, 오해이자 억측"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도중물을 마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아들의 군 문제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인 당직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하고 억측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했지만 성장통이라 생각하고 신경을 안 써 줬다. 아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엄마의 상황을 이해해줬다"며 "병원입원했을 때도 병문안도 가 보질 못했다. 엄마 역할 제대로 해 준 적 없는 엄마라 할수 있다"고 울컥하기도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지침을 내린다는 오해 때문에 그동안 말 못 했나"고 묻자 추 장관은 "다들 오해하시는데 당시 야당 대표였다. 정국이 엄중했던 터라 아들 군 문제로 군 관계자와 상의할 일도 없었고 청탁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아들의 군 문제와 관련한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인 당

"청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엄마 역할 제대로 못해" 울컥 장관직 자진 사퇴 질문 공세에 "檢 개혁, 저에게 부여된 과제"

직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하고 억측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국방부가 최근 문제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정 의원의 질문에 추 장관은 "아픈 것 핑계로 특혜받으려면 진작 그렇게 했을 것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성장통으로 생각했다. 자녀 아들 문제로 군에 특혜를 바랐다면 그 당시 조치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추 장관에게 "엄마로서 참 맘고생이 심하실 텐데 힘내라"며 마무리 지었다. 정 의원은 이날 약 1시간에 걸쳐 질의를 이어갔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질문은 하지 않고

"추 장관 아들의 휴가가 특혜가 아니었다" 며 의혹에 대해 변호하는 데 시간을 다 썼 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정부질문은 정부 측과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는 말씀을 상기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보좌관 전화 여부, 특검 임명, 통역병 청탁 등 기존 논의됐던 의제들 위주로 질문을 이어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 "국방부 자료에는 서 씨의 부모가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고 돼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고, 추 장관은 이를 부인했다. 또 국방부 민원실이 아닌 다른 곳에 보좌관을 시켜 전화한 적도 없는지를 묻는 말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임검사를 임명해 아들 관련 의혹들을 다룰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요건이 맞 아야 되는 것"이라며 "법을 수호하는 장관 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정도면 모를까, 증 거가 있다면 의원이 검찰에 접수하길 바란 다"고 말했다. 다만 그 이후로 추 장관이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고 하자 윤 의원은 "의원이 질의하는데 왜 답변을 안 하나"며 "오죽했으면 동료 의원들이 장관이 국회 와 서 답변하는 태도가 답답하다고 지적하겠 나"고 다그치기도 했다. 또 자진 사퇴할 뜻 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 다. 추 장관은 "국민에게 드린 말씀처럼 검 찰개혁은 저에게 부여된 과제"라며 "이를 운명처럼 수용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라고만 답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통역병 청탁과 관련해 "관이나 가족, 보좌관이 연락한 적 있냐"고 질문하자 "저나 가족들은 그런 연 락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렇게 안 살아왔 다"고 단해다

한편, 추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 된 한국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 씨를 이달 1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 됐다. 하유미기자 jscs508@

김하늬 기자 honey@ 박준상 기자 jooooon@

신규 확진 100명대에도 '거리두기 2단계 완화' 배경은

"국민 생업 타격 줄이고 방역 지속 위한 조치"

거리두기 강화로 이동 자체 꺼려 9월 첫 주 음식점 카드매출 28%↓

프랜차이즈 카페 등 정상 영업 '고위험' PC방 음식물 섭취 제한

일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신규 확진자가 12일째 100명을 웃 도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 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완화했다. 그 배경 에는 기존 2.5단계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1치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 정한 데 대해 "국민 생업에 타격을 줄이면서 도 방역은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소상 공인들의 어려움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음식점 카드매출 은 9월 첫째 주(8월 31일~9월 6일)에 전 년 동기보다 28.4% 급감했다. 감소율은 2 월 넷째 주(-37.8%)보다는 작고 3월 첫 째 주(-27.4%)와 비교하면 컸다. 8월 넷 째 주74.7% 감소한 영화 관람객은 9월 첫 째 주에도 72.6% 감소하며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하철과 철도 이용객도 9월 첫째 주 각각 41.4%, 60.5% 감소했다. 소비 자들이 이동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9월 첫째 주 전체 카드 승인액이 2.2% 감소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해가 특정 업종에 집중됐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이동도 위축됐다. 중대본이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을 분석한결과, 6~10일 전국 이동량은 8월 9~13일대비 2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그동 안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했던 스타벅스와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 주요 내용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시설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 · 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교랜차이즈형 커피 ·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 빙수점

□ 대장 좌석 내 이용 인원 제한 2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 · 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포장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학원(300인 미만) · 스터디카페 ·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 · 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고위험시설에서 해제,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의무화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기존 처럼 매장 내 영업이 재개된다.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프랜차 이즈형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도 매장 내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밤 9시까지로 제한됐던 음식점 심야 영업도 가능해진다.

대신 강화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야 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PC방은 고위험시 설에서 제외돼 영업이 가능해지지만, 미성

년자 출입과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PC방을 제외한 고위험시설 11종의 운영도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할 때까지 중단된다.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GX류) △뷔페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운동경기 관중 출입도 금지된다. 세종=김지영기자 jye@

한국가스공사는

연소 시 공해물질이 거의 없는 무공해 청정에너지 천연가스로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 갑니다.



한국기스공사



可燃発 好到数站 鑫 姆斯叶

#힘내라_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가_함께_응원합니다

(기조 근어

"'반의반' 받고는 명퇴 못해"…"수억 퇴직금, 국민 반감"

'명퇴제 현실화' 갑론을박

'노동력 저하시키는 임금피크제 대신 명 예퇴직을 활성화하라.'

최근 국책은행에서 일반 직장인들과 상반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현재 국책은행명예퇴직 제도는 실효성이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국책은행의명퇴금은 임피제 5년 동안 받는 급여 절반의 45% 정도다. 30개월 치월급을 한꺼번에 받는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박탈감이 심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은 명퇴금이 너무 적어 임피제적용을 받고 눌러앉는다는 의미다. 이는곧 올해 들어 봇물 터지듯 늘어난 '임피제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국책은행 노조가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명퇴제 개편에 관한 기획재정부 결정 시점이다. 명퇴제 개편의 핵심은 임피제 적용 직원들의 임금을 높이고, 퇴직금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조정해 명퇴제를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만일 기재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올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회 예산심의 이전에 명퇴제 관련 예산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국책은행 노조는 기재부가 명퇴제 현실 화와 관련된 비용을 예산안에 담아 국회에 넘길 경우, 앞으로 임피제 무효 소송을 진 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국책은 행 시니어노조 위원장은 "기재부가 예산안 국책銀, 쥐꼬리 명퇴금에 임피 몰려 수출입은행, 10년간 명퇴자 '0명' 노조 "인력적체 해소 위해 개편을"

전문가 "세금으로 지급··· 신중해야 생산성 기반 임금체계 전환이 우선"

을 국회에 넘기는 10월까지 추이를 보고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국회 가 10월에 넘어온 예산안을 심의해 12월 에 최종 의결해야 내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피제 소송, 금융권 전반 확산 = 앞서 '임금피크제 무효 및 임금 삭감분 반환 청구'소송은 국책은행을 시작으로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됐다. 이미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산업은행 외에 IBK기업은행과 국민은행, 씨티은행, 서울보증보험, 한국거래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시중은행과 공공기관까지 일제히 임피제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임피제 무효 소송이 확산한 이유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내린 판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김모 씨가 경북 문경시 지방 공기업 A사를 상대로 낸임금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사측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피제를 도입했더라도, 해당 근로자가임피제와 관련된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



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 이면 개별적 동의 없이 이를 적용할 수 없 다는 판단이었다.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해당 판결은 임피제가 개별 직원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 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판례"라며 "이 판 례가 많은 금융권 조합원들이 소송에 참여 하게 만들었다.

◇임피 직원 급증…국민 눈높이 '부담' = 현재 임피제 적용을 받는 국책은행원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5년 처음 도입된 이후 국책은행 임피제 적용 직원은 2배 이상 증가했다. 2022년까지 산업은

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임피제 적용 직원 비중은 16.9%, 11.1%, 6.7%에 달하 게 된다. 평균적으로 직원 10명 중 1명은 임피제 적용을 받는 직원이다.

가장 큰 문제가 인력 적체다. 조직이 원만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력이 순환돼야한다. 그러나 명퇴제가 유명무실한 수준에 그쳐 명퇴 신청자가 없다 보니 신입 채용은 이뤄지지 않고 고령 직원들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2014년, 2016년에 나온 명퇴 신청자를 끝으로 추가적 명퇴자가 나오지 않았다. 수출입은행은 2010년을 마지막으로 10년 동

안 명퇴자가 없었다. 임피제 적용을 받는 인력들이 정년을 끝까지 채우고 나오는 상 황이다.

이 때문에 명퇴제 퇴직금을 시중은행 수 준으로 조정해 신청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 소리가 나온다. 다만 퇴직금 현실화에 대 한 여론이 그리 긍정적이진 않다. 국민 세 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인 만큼 억대 퇴직 금에 반감을 갖고 있는 국민이 다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민간기업보다 금융공공기 관 직원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 금융공공기 관의 퇴직금을 더 높이면 반발이 심할 것이다. 퇴직금을 조정하기에 앞서 누구나인정할 수 있는 업무 생산성 기반의 임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의 직원이라고 무조건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연령대가 높은 직원이라도 생산성 높은 직원은 남아야 한다. 즉, 연공서열 형태의 임금체계로는 조직이 유지되기 힘들기 때문에 생산성을 우선시한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연기자 contest@

〈먹방 유튜버〉

"햇님이와 톡하다 닭발 샀어요" 유통도, 포털도 '대세는 라방'

'언택트 소비' 확산·MZ세대 겨냥 '실시간 방송' 쇼핑 패러다임 바꿔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거래가 뉴노 멀로 자리 잡으면서 새롭게 떠오른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라방'이라 불리는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을 뜻한다. 특히 소비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MZ세대를 잡기 위해서는 이 채널의 구축이 필수다. 취급 상품도 김치부터 구찌 · 디올 등 고가 명품까지 전방위적이다. 이 때문에 티몬, 11번가 등이커머스는 물론, 플랫폼을 보유한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기업, 신세계, 롯데 등전통 오프라인 유통업체까지 일제히 시장에 뛰어들면서 판이 커지고 있다.

라이브 커머스는 판매자가 방송을 통해 제품 상세 정보를 소개하면 시청자들이 방송과 댓글로 얻은 정보로 구매를 결정하고 방송 창에서 바로 '구매하기' 버튼을 눌러 제품을 살 수 있다. 말 그대로 빅블러(Big Blur, 경계융화가 일어나는 현상)다. 사는 자와 파는 자, 만질수 있는 것(제품)과 만질수 없는 것(서비스)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오프라인 유통과 이커머스의 경계를 넘어 미디어와 쇼핑, 유통업과 IT업종의 경계마저 허물어지고 있다.

라방은 이커머스업계가 먼저 뛰어들었지 만, 쇼핑 주도권이 급속히 라방으로 옮아가 자 전통 유통업체들도 속속 가세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자회사인 커머스 전문 콘텐 츠 제작사 마인드마크가 7일 스튜디오329 지분 55.13% (16만7962주)를 45억2000만 원에 현금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메프가 지난달 26일 내보낸 먹방 크리 에이터 입짧은햇님과 소상공인협동조합



IT기업

네이버: 10월 5일 잼라이브 인수 …라이브 쇼핑 발판 마련 카카오: 카카오쇼핑라이브 누적 시청 횟수 500만 회 돌파 톡채널 친구 수 '100만 명' …패션, 육아용품 등 망라

오프라인 유통업체

신세계: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체 '스튜디오329' 인수 신세계면세점, 쇼핑 도우미로 스타 스타일리스트 섭외 갤러리아: 16일 네이버쇼핑라이브 통해 첫 라방 롯데: 롯데백화점, 14일부터 2주간 추석 선물세트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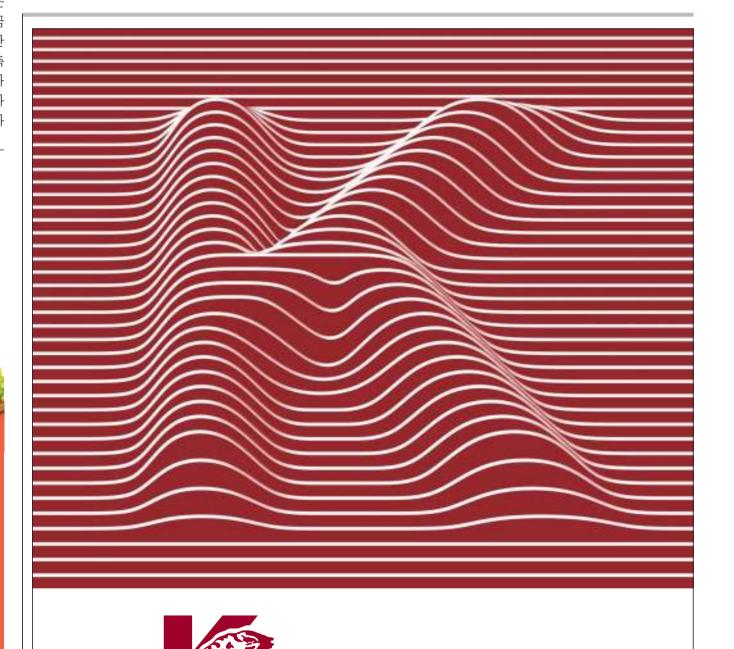
이커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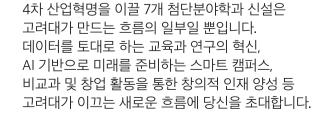
11번가: 11일 인기 브랜드로 추석특집 라방 진행 위메프: 라방에 인기 개그맨 섭외… 소상공인 판로 개척 지원

우수 제품을 시식하는 라방 '어디까지 팔 아봤니 시즌 2'는 밤 10시부터 90분 동안 판매 수량 6만5000개를 넘어섰다.

네이버는 최근 자회사 스노우가 운영하던 플랫폼인 '잼라이브'를 인수하고 자사의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와 결합해 시너지를 노릴 방침이다.

다만 라방 시장의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라이브 커머스는 대다수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중개업자로 분류돼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판매자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 김익성 한국유통학회 명예회장(동덕여대교수)은 "라이브 커머스의 주체가 책임을 명확히 공시하고, 나아가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경무기자 noglasses@





모든 변화의 시작은 고려대에서!

-WAVE



2021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 서울캠퍼스 : 2020, 9, 23, (수) 10시 ~ 9, 25, (금) 17시 • 세종캠퍼스 : 2020, 9, 23, (수) 10시 ~ 9, 28, (월) 18시

• 접수처 : oku korea ac kr

"경제회복이 최우선 과제"… 이목 쏠린 스가노믹스

아베노믹스 양적완화에도 일본 경제 8년 전으로 후퇴 코로나·올림픽 등 현안 산적 일본인 납북 문제 접근 주목 관심 먼 헌법 개정은 안 할듯

아베 신조가 '일본 최장수 총리'라는 화려한 기록을 남기고 8년 독주 체제에 마침 표를 찍으면서 그의 뒤를 잇게 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자민당 총재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아베 총리는 재임 기간에 놀라운 기록들을 남겼지만, 폭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완만한 것이 대부분. 이런 아베의 유산을 진전시킬지의 여부는 전부 스가의 몫이다.

우선, 스가 신임 총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내년으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아베노믹스' 이전으로 후퇴한 경제도 살려야 한다. 아베가 항상 '정책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던 헌법 개정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도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한 상황이어서 스가 신임 총재가 이들 현안에 어떻게 접근할지 주목된다.

공은 이제 스가 시대로 넘어갔다.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억제' = 스 가 신임 총재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 확 산세를 어떻게 통제하느냐다. 스가는 8일 아사히TV에 출연해 "신임 총리로서 가장 큰 일은 코로나19로 황폐해진 경제를 되살 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일본 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만 명을 넘었 고, 지금도 매일 100명이 넘는 신규 감염 자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지 못하면 경제 회복이나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는 목표 달성도 불가능하게 된다.

◇도쿄올림픽 예정대로 개최? = 국제올 림픽위원회(IOC)는 코로나19 상황과 관 계없이 내년 7월 도쿄 하계올림픽을 예정 대로 개최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올림픽 개최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이미 일본은 올림픽을 1년 연기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끌어안게 됐다. 영국 옥스 퍼드대는 4일 자 보고서에서 "도쿄올림픽 예상 지출액은 158억4000만 달러(약 18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가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 관에게 축하 꽃다발을 건네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조8200억 원)로, 이전 사상 최대치였던 2012년 영국 런던올림픽의 149억5000만 달러를 웃도는 것은 물론 이보다 더 늘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도쿄올림픽의 예상수익 대비 비용 초과 비율은 200%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못하면 올림픽을 무관중 경기로 치르는 최악의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올림픽을 통한 일본 경제 재건과시'라는 애초의 유치 목적은 허망하게 사라지고 일본은 더 큰 빚더미에 앉게 된다.

◇ '스가노믹스' 띄울까 = 아베는 공격적 인 금융정책 완화로 시장에 돈을 풀어대는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를 펼쳤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이전 두 차례의 소비세율 인상 여파로 일본 국내총생산(GDP)은 500조 엔에도 못 미치며, 급기야 아베가 2기 집 권을 시작한 2012년 말 수준으로 후퇴했 다. 올 2분기 일본 GDP 증가율은 연율 환 산으로 마이너스(-) 28.1%였다. 이는 1955년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 후 최악의 역성장이다. 전문가들은 3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이 연율 10% 이상으로 회 복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2분기의 심각 한 침체를 감안하면 느린 회복세다.

아베 정권이 시행한 1인당 10만 엔의 재 난지원금과 여행산업 지원을 위한 '고 투 트래블' 사업 등 경기부양책도 기대만큼 소비를 진작시키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코로나19는 물론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등 일본 경제를 둘러싼 장기적인 문제도 여전하다.

스가는 9일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 서 "일본 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 라며 "사회복지와 안보, 재정 개혁을 위해서는 튼튼한 경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베노믹스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계속 주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개헌과 북한 문제 = 사실 아베의 최대 숙원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일본을 전쟁 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려는 평화헌법 개정 이었다. 이에 대해 스가는 "2018년 자민당 이 제안한 4가지 개헌안을 토대로 헌법 개 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년 전 개헌안에는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 무상화와 대규모 재해를 염두에 둔 중의원 임기 연장, 참의원 선거구 조정 등이 담겼는데, 핵심은 자위대 설치 근거 조항의 헌법 명기에 있다.

그러나 스가 신임 총재가 일본 국민의 관심과는 거리가 먼 헌법 개정에 적극적으 로 나설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스가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와 탄도미사일 방어 등 전임자인 아베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할 방침이다. 그는 2일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아무 전제 조건 없이 만나 납치 문제에 대해 돌파구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스가가 북한 문제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라 스미스 미국외교협회(CFR) 선임 연 구원은 "스가는 안보 측면에서는 절대 비둘 기파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미국의 대 북 제재를 계속 지지하는 등 북한에 절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특별기고 스가시대 한일 외교관계

물밑 접촉으로 문제 푸는 스타일 한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 있어

14일 일본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서 스가 요시하데(菅義偉) 관방장 관이 압도적 득표로 신임 총재에 선출 됐다. 16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스가 는 아베 신조의 뒤를 이어 새 총리로 지명된다.

스가가 새 총리가 되면 가장 먼저 실시하겠다고 주장해 온 것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철저한 대책이다. 아베 정권은 코로나 19 감염을 판정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을 관리하지 못했다. 그 요인으로는 의료 시스템 미비와 의료진의 고집이 있었다. 스가는 총리가 되면 이런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코로나19 대책은 한국, 일본을 막론하고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한일 간 코로나19 대책 차원에서 협력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호관계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전망할 수 있는 이유는 스가가 이번총재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디지털 청'을 신설한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한국 방역 시스템에서는 전자카드 나 휴대폰 전화번호 등으로 사람의 동

코로나 철저한 대책 강조 전자정부 도입, 韓 도움 가능 청구권협정 기존 입장 유지 코로나 협력 땐 관계 증진

선을 추적할 수 있지만, 일본은 그렇게 못한다. 일본에는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없어서 개인정보 수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은 '마이 넘버 (MY NUMBER)'로 불리는 제도로개인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면서 문제점을 조금씩 개선해 왔다. 그러나 MY NUMBER를 만드는 것은 강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다. 그런데 디지털청을 창설하면 일본은 전자정부화가 가속화할 것이고, MY NUMBER 제도도 법적으로 정비될 것이다. 이런 전자정부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이 일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한일 간 협력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스가는 외교적 경험이 많지 않으므로 외교에서는 아베 총리의 도움을 받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안보 측면에서는 "미·일 관계를 중심축으로 하면서 중국이나 한국과도 대화해 나가겠다"며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의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에대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모두 끝났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의 관방장관 시절 한국에 대한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스기는 2018년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 "잘못된 문제는해결해야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한국측이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수용할 수 없다. 합의의 착실



호사카 유지

한 실행이 양국에 요구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지 고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10월 30일 한국 대법 원이 강제징용자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린지 1주년을 맞은 것에 대해 "한국 에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며 "판결 후 1년이 지나 도 한국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2020년 1월 7일 스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일본에 수출관리 강화 조치 철회를 촉구한 데 대해 "코 멘트를 자제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서는 "제반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어떤변화도 없다. 계속 한국 측에 현명한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6월 19일 스가는 한국 정부가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설치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해 "한국 측의 일방적인 대응은 한일 양측이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약속한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의 합의를 깰 우려가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일 관계는 계속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같은 스가 총재의 한국에 대한 그동안의 언행을 볼 때 그는 항상 한 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온 사 실을 알 수 있다. 스가의 주장은 한마 디로 '일본 측에는 잘못이 없고 한국 측이 잘못 움직이고 있으므로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은 한국 측'이라는 견 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베 견해 그 대로다.

다만 스가는 아소 다로 부총리처럼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언급한 적은 없다. 오히려 한국과의 대화를 강조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스가는 한 일 관계의 현안들을 풀기 위해 한국 측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변수는 스가 정권에 장관으로 극우 파가 대거 등용되거나 아소가 부총리 겸 재무상으로 유임되는 것이다. 그렇 게 되면 스가 신임 총리 주변에서 한 국에 대한 강경 발언이 나올 것이고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스가의 특색은 물밑 사전교섭과 정 책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 치 스타일이다. 한국은 그의 정치 스 타일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파벌 정치' 배경 없이 권력 최정점 오른 '자수성가 총재'

스가는 누구인가

요코하마 시의원 정계 입문 대북 노선 같은 아베와 인연 관방장관으로 7년 동안 재임

'아베의 입'으로 알려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집권 자민당 총재로 선출 돼 차기 총리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그의 인생 이력이 주목받고 있다.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정권 2기 출범 후 8년 가까이 관방장관으로 재임한 그는 세습·파벌 중심의 일본 정계에서 '뒷배경' 없이 권력의 최정점에 오른 특별한 이력의 소유자다. '자수성가 총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1948년 일본 동북부 아키타현의 딸기 농가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스가는 고등학

스가 요시히데 일본 자민당 총재 이력

1948. 12. 6아키타현 오가치군 출생1987. 4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시의원
당선으로 정계 입문(2선)1996. 10. 20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첫 당선(8선)2006. 9총무상 재직(제1차 아베 내각)2012. 12. 26제2차 아베 내각 출범과 함께
관방장관 취임2020. 9. 14자민당 26대 총재로 선출2020. 9. 16일본 총리(예정)

교 졸업 후 도쿄로 상경해 골판지 공장 등에서 막노동을 했다. 스가는 졸업 후 기업에 취직했지만 마음은 콩밭에 있었다. 결국 정치에 뜻을 품은 스가는 가나가와현의 오코노기 히코사부로 중의원의 비서로 들어갔다. 11년에 걸친 비서 생활 끝에 1987년 요코하마시 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정계에 처음 입문하게 된다. 요코하마에서 2선을 지낸 스가는 1996년 자민당의 공천을 받아 48세의 나이에 가나가와현

중의원에 당선되며 의회에 입성, 본격적인 정치 여정을 시작했다. 이후 그는 이 지역 구에서만 8선을 했다.

2002년 시작된 아베와의 인연이 스가의 남은 정치 인생을 가르는 분기점이 됐다. 18년간 둘을 정치 공동체로 묶게 한 계기 는 다름 아닌 북한 문제였다. 대북 강경 노 선에서 아베와 스가는 서로 통했다.

2006년 아베가 총리에 취임하면서 스가는 총무상으로 발탁됐고, 2012년 9월 아베 총리가 2차 집권을 시작하면서 스가도 2인자인 관방장관에 올라 7년 8개월 동안자리를 지켰다. 스가가 아베 곁에 오래 머물수 있었던 것은 둘의 정치적 DNA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스가의 한국관련 망언은 아베와 판박이다.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 독도영유권 문제에서도 아베와 뜻을 같이했다.

'아베 시즌2'…한일 무역 갈등에 추가 수출규제 촉각

반도체 日소재 의존도 낮췄지만 수입 비중 늘어난 품목도 34종 WTO 제소·대화 '투트랙' 대응

일본의 총리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으로 사실상 확정됐지만 한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아베 정권 시즌 2'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기존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통상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일본 수출규제가 전화위복이 되고 있다면서도 추가 제재를 우려한다.

◇ 정부 "WTO 제소 절차 예정대로…대 화는 지속" = 스가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 악화의 근본 문제인 한국 대법원 징용 판 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한일 무역 갈등에도 극적 반전은 없을 것이라는 의 미다.

일본은 지난해 7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 노역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핵심 반 도체·디스플레이·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 제를 단행했다. 8월에는 자국 기업이 수출 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일본 수출규제 일지 2019.7.1 일본,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한국 수출규제 발표 일본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 8.7 8.22 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 8.28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시행 한국, WTO에 '일본 수출규제' 제소 9.11 한국, 일본 '백색국가 제외' 시행 10 9.18 11.22 한국,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및 WTO 제소 절차 정지 12.2 일본,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 일부 완화 한국, 일본에 5월 말까지 한일 수출 현안에 대한 입장 요구 한국, 일본 수출규제 관련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 결정

이에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불확실성과 비용 등이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올해 7월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분쟁과 관련,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의 설치를 확정, 패널위원 구성 절치를 진행 중이다.

WTO 재판은 통상 1~2년 소요된다. 다만 결과에 불복해 상소가 제기된다면 양국간 다툼은 3년 이상으로 장기화할 수 있다. 한일 수산물 분쟁의 경우 약 4년이 걸렸다.

정부 관계자는 "WTO 분쟁해결은 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다"며 "기존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통상 정책을 유지하면서 일본 내부 상황에 맞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앞으로의 상황이 바뀔 수는 있 다"면서 "또 일본 총리가 바뀐 것과는 별개 로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 업계, 반도체 등 추가 규제 예의주시= 업계는 수출규제 1년이 지나면서 소재부품 국산화 속도가 높아지는 등 일본의 수 출규제가 전화위복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 면서도 추가 제재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여전히 일본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많은 탓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일(對日) 수입 상위 100개 품목 중 34종은 전년 (2018년) 보다 비중이 늘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원재료 실리콘웨이퍼는 대일 수입 비중이 34.6%에서 40.7%로 늘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실리콘웨이퍼의 경우, SK실트론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단숨에 일본 업체의 기술력을 따라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노광 공정에서 사용되는 포토마스크 원 재료 블랭크마스크도 마찬가지다. 호야, 신에츠 등 일본 기업이 90% 이상을 공급 중이다. 특히 차세대 EUV(극자외선)용 은 호야가 독점하고 있다. EUV 공정을 도 입한 삼성전자도 호야의 마스크를 활용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동차산업의 경우 일찌감치 기술적으로 일본 의존도를 낮춰왔다는 점은 다행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한일 간 통상 갈등이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양국 관계가 더 나빠질 게 없을 정도로 악화한 상황이나 쟁점을 풀 가능성은 없어보인다"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일본만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막하다

다만 그는 "일본의 리더십이 바뀌는 것은 일종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 고뇌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도 강제노역 후 속 조치에 대한 입장 변화 등이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한국과 어려운 문제" 언급한 스가 해결보다 "전략적 관계 구축" 무게

11월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 '징용배상' 입장 변화 없을 듯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의 오른팔'로 불리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이 당선되면서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에 변화가 올지 관심이 쏠린다.

스가는 아베 신조 현 총리의 후계자로 불리는 인물인 만큼, 한일관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과 외교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회의적 전망까지 나온다. 스가는 "아베 정권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밝힌 상태이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서는 11월 말 추진되는 한 중일 정상회의,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을 위한 현금화, 내년 도 교올림픽이 향후 한일관계 개선의 향 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 만스가 장관이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어놓은 아베 총리에게 조언을 구 하며 그의 외교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한일 관계에 큰 변 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 하다.

스가 장관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으로 악화한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을 언급하며 "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더구나 스가 장관이 "한국과 어려운 문제 있다"며 해결이나 협상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풀어가겠다고 한 점, 우호적 관계 대신 '확실한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한 것은 아베 총리의 외교·안보 정책을 이어간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한일 간의 갈등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스가 장관이 아베 총리와 달리 주변국과의 외교에서 실용적 온건파 로 불리고 있어 향후 한일 정상회담에 서 문재인 대통령과 극적 타결을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강제노역 배상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일본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수출 규제 문제 는 진전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 강제 노역 문제에 대해서는 스가 장관이 바로 다른 태도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 라고 말했다.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봉태 법무법인 삼일 변호사는 "스가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발언이 한국 비판적이었던 것은 아베 정권의 관방장관이기 때문"이라며 "큰 변화는 없겠지만 정권이 안정화되면 (아베 총리와 다른) 자기 색깔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 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했다.

일본제철이 배상하지 않자 대구지 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피해자 변 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인 4억여 원의 피엔알(PNR) 주식 압류 신청을 승인했다. 일본 정부의 무응답 과 공시송달 등을 거쳐 지난달 초 압 류명령결정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대 응해 일본제철은 즉시항고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일본제철 자산에 대해 현금화할 경우 다양한 방안을 통 한 보복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 정일환 기자 whan@ 정수천 기자 int1000@



경실련 "국회의원 재산, 후보 때보다 1700억 늘어"

신규등록 의원 175명 분석 1인당 평균 10억 늘어난 셈 전봉민 866억·한무경 288억↑ "비상장주식·부동산서 증가 거짓 신고해도 검증조차 안해"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들의 신고 재산이 후보 때보다 1인당 평균 1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1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등록 국회의 원 175명(재등록의무자 21인 포함)의 당 선 전후 전체 재산 및 부동산 재산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당선 후 이들의 신고재산은 평균 10억 원, 부동산 재산은 평균 9000만 원 늘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4·15 총선 전 후보 당시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작 년 12월 31일 보유 기준)과 당선 이후 국 회사무처에 신고한 재산(올해 5월 30일 보 유기준)을 분석자료로 활용했으며 부동산 재산은 임차권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의 1인당 평균 신고 재산은 전체 재산(18억1000만 원→28억1000만 원)과 부동산재산(12억4000만 원→13억3000만 원) 모두 후보자 때보다 당선 후 많이 늘어 났다. 재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의원은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다. 전봉민 의원은 후보 등록 때보다 선거 이후 재산이 무려 866억 원 증가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도 각각 288억



원, 172억 원 증가해 후보 때보다 당선 후 재산이 급증한 상위 3인에 이름을 올렸다.

재산이 10억 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5명으로, 1인당 평균 111억7000만 원이 증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후보 때보다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60명으로, 이 중 12명은 1인당 평균 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후보 당시 5억4000만 원에서 23억2000만 원으로, 17억8000만 원이 증가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지역구)이었다. 이 의원은 실거래한 서초구 아파트에 대해 후보자 재산신고 이후 잔금을 납부하면서 이 금액이 재산으로 추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서초구 아파트 매도 및 종로구 아파트 매입으로 부동산 가액이 6억3000만 원 증가했고,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및 상가 등 4채의 부동산 가액은 76억4000만 원에서 81억6000만 원으로 늘었다.

경실련은 "상위 3인 재산만 후보등록 때보다 1326억 원이 증가해 전체 증가액의 76%를 차지했다"며 "보유하고 있던 비상 장주식의 가액 및 부동산재산 가액변동, 부동산 신규 등록 등에 의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건수가 후보 때보다 당선 후 178건 늘어난 것에 대해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거짓 신고를 해도 선관위와 국회가 (재산 내역을) 검증하지 않는다"며 "한 달 후면 공소시효도 만료돼 처벌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꽃들기자 flowerslee@

대표 취임인사 및 한국노총 방문 오후 3시, 6층 대의실 Chong. Pr. 등조합· W. ind 한국나 생 W.

한국노총 찾은 이낙연

이낙연(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인사 및한국노총 방문 간담회'에 참석, 김동명(두 번째) 한국노총 위원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역대 최저금리 외평채 발행에 공기업 '수혜'

달러채 1.198%, 유로채 마이너스 가스공사 "110억 이자 절감 기대"

정부가 14억5000만 달러 규모의 외국환 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역대 최저 금리 로 발행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공기업들도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 제 위기 대응 등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투 자자들의 굳건한 신뢰, 대외건전성 등 펀 더멘털에 대한 평가를 재확인했다"고 의미 를 부여했다.

정부는 이달 9일(현지시각) 10년 만기 미국 달러화 표시채권 6억2500만 달러와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채권 7억 유로를 발행했다. 발행 금리는 10년물 달러채의 경우 1.198%, 유로채는 -0.059%로 모두역대 최저 수준이다. 특히 5년물 유로채는비유럽국가 유로화 표시 국채 가운데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 채권으로 발행됐다. 외평채는 외국환평형기금 조성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환율 급등락을 막고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외환 확보 수단이다.

통상 외평채는 한국계 외화채권의 벤치 마크 역할을 해서 앞으로 공기업이 신규 외화채권을 발행할 때도 금리가 하락해 이자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 리는 "유로화 외평채는 마이너스(-) 금리로 이자가 없는 등 최소한의 비용으로 외

환보유액을 확충했고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외평채 가산금리 하락으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올해와 내년에 8억 달러 규모 이상의 외화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올해와 내년의 외화채권 규모를 고려할 때 110억원 규모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도 이달 말 6억 달러 규모 의 외화채권을 발행한다. 석유공사 관계자 는 "정부의 외평채 발행을 계기로 이달 말 채권 발행 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조성욱 "플랫폼·반도체·지재권 등 불공정행위 상당수 사건 조사 중"

오늘 ICN 화상 연차총회 참석 디지털시대 공정위 역할 제시

조성욱〈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각국의 경쟁당국에 정보통신기술 (ICT) 특별전담팀을 통해 온라인 플 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반도체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상당수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힐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위원장이 15일 화상으로 열리는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의 공정위의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이런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 위원장 취임 이후 디지 털 등 신산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ICT 특별전담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최근 첫 사건으로 자사와 계약을 맺은 부동산 정보업체가 카카오와 제휴하는 것을 방해한 네이버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 현재 공정위는 전담팀을 통해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에 설치된 자사 앱마켓에서 독점적으로 앱을 출시해 다른 앱마켓을 배제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의 여부 등을집중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또 연차총회에서 급속 도로 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관련 법 제·개정도 소개한다.

그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온라인 플 랫폼, 데이터 기업 등의 비중이 커지 며 새로운 경쟁·소비자 이슈를 발생시 키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의 입점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내 년 상반기까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대규모 유통업법이나 대리점법처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법을 만들어 플 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기반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추진도 설명한다.

한편 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정책 및 법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01년 창설된 협의체로서 현재 12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부정적 여론에도… 통신비 지급 고수

야 "선심성 예산, 수정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 이라고 언급한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두고 정치권이 공세를 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는 방어에나섰지만,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이 선심성 예산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번 주 내로 4차 추경 심사를 마무리 짓는다 는 방침이다. 13일 열린 긴급 최고위원 간 담회에서도 민주당은 통신비 관련 논의를 일절 하지 않았다며 확정 의지를 드러냈 다.

국민 여론이 좋지만은 않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 상으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한 응답자 비율이 58.2%(매우 잘못한 일39.8%, 어느정도 잘못한 일18.4%)로 나타났다. '잘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7.8%(매우잘한 일15.7%, 어느정도 잘한 일22.1%)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4.0%였다.

이처럼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둘러싸고 부정 여론이 흐르는 가운데, 여야역시 통신비를 포함한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 채무가 한 해에만

106조 원 급등한 상황에서 4차 추경 7조 8000억 원 중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통신비 2만 원 보조에 쓴다는 것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상무 위원회에서 통신비 지급을 두고 선심성 예산 낭비라면서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맞고 있는 노동자들과 실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해 '긴급 고용안정자금'으로 확충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청은 원안 유지 방침을 고수 하는 양상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의 인터뷰에서 "한 가족에 중학생 이상이 3명, 4명이라고 하면 6만 원, 8만 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며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은 국회의 책무인 만큼 논의를 경청하겠다"면서도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판단한 것"이라고 말해 현 단계에서 청와대가 다른 안을 고려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날 정치 관련 대정부질문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통신 비 2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 위한 예산편성 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이꽃들기자 flowerslee@



틱톡 품은 오라클… 트럼프 친분 업고 '막판 대역전'

MS 제쳤다 '인수전 막전막후'

패권경쟁美中, 안정적 선택 꾀해 바이트댄스 투자자 지원도 한 몫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중국 바이트댄스 산하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전이 미국 소프트웨어업체 오라클의 깜짝 승리로 일단락됐다. 오라클은 마이크 로소프트(MS)가 유리한 상황에서 뒤늦 게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매각 시한을 이틀 앞두고 막판에 역전극을 연출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속에 뜻밖 의 제 3자가 횡재를 하게 된 것이다.

13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바이트댄스는 "오라클이 틱톡의 신뢰하는 기술 파트너가 될 것"이 라며 "오라클을 틱톡 매각 협상의 우선협 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오라클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그동안 틱톡 인수전에서 일찌감치 승자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MS는 '닭 쫓던 개' 신 세가 됐다. 오라클 선정 발표에 앞서 MS 는 바이트댄스로부터 매각 거부 통보를 받 았다고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틱톡을 둘러싼 미·중 갈 등 양상이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진 가운 데,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정치적 부 담이 덜한 오라클을 선택했다"고 풀이했다.

오라클은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로 경영 면에서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예를 들어, 오라클은 틱톡의 미국 기술 파트너 역할을

하면서 자사 클라우드 서버에 틱톡 데이터 를 보관할 수 있어 현재 기술산업의 고성 장 부문으로 꼽히는 클라우드 사업을 확장 할 수 있게 된다. 또 막대한 빅데이터 확보 와 이에 대한 인공지능(AI) 분석 등으로 자사 핵심 사업인 고객관계관리(CRM)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안보 우려를 다 소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오라클이 MS라는 막강한 경쟁자 를 물리친 이면에는 사업적 고려 그 이상 의 '힘'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당인 공화당, 바이트댄 스 주요 주주인 미국 투자자들의 든든한 지원이다.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은 실리콘밸리에 서 드물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를 자처 했다. 진보 성향이 강한 IT 업계에서 트럼프 를 지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엘리슨은 올해 초 자택에서 기금 모금 행사 를 여는 등 트럼프를 적극 후원해왔다.

트럼프는 지난달 한 기자회견에서 "오라 클은 위대한 기업이고 오너는 대단하고 훌 륭한 사람이다. 오라클은 확실히 틱톡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힘을 실어 주기도 했다. 여기에 바이트댄스 주요 주 주이자 이사회 구성원인 미국 투자회사 세 쿼이어캐피털과제너럴애틀랜틱의자금력 도 작용했다. WSJ는 지난달 중순 오라클 이 뒤늦게 틱톡 인수전에 뛰어든 이면에 이들 투자회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 또한 엘리슨처럼 트럼프와 공화당의 든든 한 후원자 역할을 해왔다.

바이트댄스도 오라클의 이런 배경을 의 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5일 까지'라는 최후통첩을 무시하면 트럼프 정 부의 분노를 사 결국 미국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오라클보다 MS에 틱 톡을 넘긴다면 바이트댄스는 물론 중국 정 부까지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이에 완전 매각이라는 형 태보다는 오라클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 려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 중국 정부도 이 를 인정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美 대선 D-50··· 트럼프, 대규모 실내유세 강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헨더슨시에서 열린 대규모 유세행사에서 연설하기 위해 무대에 오르고 있다. 15일로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

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간 유세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이날 대규모 실내 유 세를 강행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여론조사에서 침묵하는 '샤이 트럼프' 때문에 결과를 장담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헨더슨/AP연합뉴스

〈英 반도체 설계회사〉

돈 급한 손정의 'ARM' 팔아 '9.5兆' 쥐었다

4년 전 "미래 보는 수정구슬" 극찬했지만 '계륵' 전락… 엔비디아에 400억 달러에 매각

세계 최대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설계·제조업체 엔비디아가 일본 소프트 뱅크그룹 산하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홀딩스를 품에 안았다. 손정의〈사 진〉 소프트뱅크 회장은 2016년 인수 당 시 ARM을 "미래를 내다보는 수정 구슬" 이라고 극찬했지만, 소프트뱅크가 '복합 기업'에서 순수 '투자회사'로 이미지 변 신을 꾀하는 가운데, ARM과의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자 결국 '돈'을 선택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 르면 이날 엔비디아는 소프트뱅크로부 터 400억 달러(약 47조3000억 원)에 ARM을 인수한다고 공식화했다. 인수 대금은 주식 215억 달러와 현금 120억 달러로 치르며, 매각 완료 후 소프트뱅 크는 엔비디아 주식 6.7~8.1%를 보유 한 대주주가 된다.

소프트뱅크는 7월 ARM 매각을 공 식화한 후 ARM의 기업공개(IPO)도 검토했지만, 엔비디아가 인수 대가로



에 혹한 소프트 뱅크는 엔비디 아 또는 새로운 통합회사의 주 식 취득을 전제 로협상에들어 갔다. 이 조건 이라면 엔비디

아는 현금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소프트 뱅크는 현금 외에 엔비디아 지분도 인 수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만큼 그야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래인 셈

그러나 ARM을 떠나보내는 손 회장 도 심기가 편하진 않을 것이다. ARM 인수는 손 회장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 고, ARM을 인수하면서 "미래를 내다 보는 수정 구슬"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소프트뱅크는 320억 달러라는 거액을 들여 매입한 ARM에서 재미를

량은 증가했지만, 사업 확장 투자가 늘 어나 2019년 상각전영업이익(EBITA)은 2억7600만 달러로 2016년의 30% 에 그쳤다. 실적 부진에다 비전펀드의 투자 손실로 현금 조달이 시급해지자 소프트뱅크에게 ARM은 계륵 신세가 됐다. 결국 소프트뱅크는 4년 만에 약 80억 달러의 차익을 남기고 ARM과 결 별하게 됐다.

반면 엔비디아와 ARM의 시너지는 기대해 볼 만하다. ARM을 품에 안은 엔비디아는 GPU 강화는 물론 데이터 센터에도 함께 사용하는 중앙처리장치 (CPU) 시장으로의 진출이 현실화, 더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프트뱅크의 ARM 매각은 투자회사 로 전환하는 와중에 산하에 두느니 시너 지가 기대되는 기업에 팔아 성장시킨 후 콩고물을 나눠 먹겠다는 전략인 셈. "결 국 손 회장도 돈에 무너졌다"는 뒷말이 거액을 제시하자 방향을 틀었다. 거액 보진 못했다. 설계한 반도체 칩의 출하 나오는 이유다. 김서영 기자 0jung2@

美 'SW 군단' 무더기 상장 기술주 IPO 기근 해소할까

12개社 기업공개…8兆 조달

미국 소프트웨어 군단이 무더기로 증시 상장에 나선다. 지난해 5월 우버테크놀로 지 이후 상장 기근에 시달렸던 기술주 기 업공개(IPO) 시장에 모처럼 단비가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증시에서 이번 주 12개 기업이 IPO를 실시해 총 68억 달러(약 8조 원)를 조달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금융정보업체 레 피니티브 집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주간 기준으로 우버의 81억 달러를 포함해 총 96억 달러를 조달했던 지난해 5월 첫 주 이후 가장 큰 장이 서게 될 것이라고 FT는 분석했다.

특히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IPO 러시를 주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레 피니티브에 따르면 이번 주 IPO 조달액 중 절반을 실리콘밸리 소프트웨어 기업 3 개사가 차지한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체인 스노플레이 크는 15일 IPO에서 22억 달러를 조달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7년의 VM웨어를 다.

넘어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사상 최대 규모 IPO가 된다. 스노플레이크는 지난주 워런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와 세일즈포스닷컴 으로부터 각각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투 자를 유치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업체 유니티는 17일 9억5000만 달러 규모 IPO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스노플레이크와 VM웨어 에 이어 미국 3위 기록을 세우게 된다.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증강현실 (AR) 게임 '포켓몬고'와 닌텐도의 '마리 오카트' 등 숱한 인기 게임이 유니티의 게 임 엔진으로 제작됐다.

데이터 소프트웨어 플랫폼 스모로직은 16일 IPO를 통해 2억8100만 달러의 자금 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짐 쿠니 미 주자본시장 대표는 "많은 기업이 시장의 강점과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고 려해 IPO 계획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며 "IT 기업들의 거대한 혁신과 미국 연방 준비제도(Fed·연준)의제로금리정책,양 적완화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 변효선 기자 hsbyun@

"결렬땐 154兆 손실" 유럽 車업계, 英-EU 협상 촉구

유럽 자동차 업계 단체가 '브렉시트(영 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는 영국과 유럽연합(EU)에 자유무역 협정(FTA) 체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 르면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와 유럽자동차부품공업협회, 영국자동차산 업협회(SMMT), 독일자동차제조업협회 등 유럽과 영국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23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 "FTA 협상 결렬 등 '노 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가 일어나면 2025년까지 약 1100억 유 로(약 154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며 양측에 FTA 체결을 촉구했다.

영국은 1월 말 공식적으로 EU에서 탈퇴 했지만, 현재 EU와의 FTA 등 미래관계 합의를 위해 연말까지 전환(이행)기간을 둔상태다. 만일 FTA를 체결하지 못한 채 12월 31일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세계무역 기구(WTO) 규정이 적용돼 승용차에

10%, 상용차에 최대 22% 관세가 각각 부 과된다.

ACEA 등 협회는 성명에서 "관세가 자 동차회사 대부분의 순이익률보다 훨씬 높 다"며 "업체는 이런 비용을 거의 확실하게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차량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승용차 와 밴만으로도 향후 5년간 EU와 영국에서 생산이 300만 대 이상 줄어들 수 있다"며 "유럽 자동차업계는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산량이 360만 대, 금액상으로는 1000억 유로 감 소했다"고 호소했다.

이미 해외 자동차업체의 영국 엑소더스 (대탈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혼다는 영국 완성차 공장 폐쇄를 결정했 다. 독일 BMW도 관세율에 따라서 영국 완 성차와 엔진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방침을 예고했다. 최혜림 기자 rog@

박테크와 경쟁 대신 동반자로 권광석 '디지털 강화' 승부수

취임 6개월 '적과의 동침' 선언

DT 추진단·AI 사업부 신설 등 고객 중심 서비스 편의 개선 역점

네이버·키카오와 연합전선 구축 모바일 번호표·비대면 대출 개시

권광석 우리은행장이 디지털전환(DT) 속도와 경쟁력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적과의동침'을 선택했다. 지난 3월 24일 취임해 임기(1년) 전환점을 앞둔 시점에서 기존 금융사들의 경쟁사로 여겨졌던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과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고객편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DT를 추진하겠다는 권 행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새 네이버와 카카오와 협약을 맺고 신규 서비 스에 나섰다. 빅테크와 경쟁 대신 동맹전 선을 구축한 것은 권 행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이다. 권 행장은 취임 이후 줄곧 DT 경쟁력 강화를 언급했다. 권 행 장은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디지털분 야에서도 'DT추진단' 및 'AI사업부'를 신 설했다. 특히 DT추진단에는 디지털전략 부, 빅데이터사업부, AI사업부, 디지털사 업부, 스마트앱개발부를 배치했다. 추진단 은 은행의 전체적인 디지털 전략과 신기술 적용 분야 확대 및 디지털 마케팅과 채널 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겼다. 당시 권 행장 은 "조만간 경쟁력있는 플랫폼 사업자와 고객 중심의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0일 카카오페이와 '디지털 금융서비스 공동 개발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첫 번 째 공동사업으로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톡



· 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제공하는 '내 대 출 한도' 서비스에 우리은행 비대면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우리은행 비대면 대출상품의 한도와 금리를 조회한 후, 우리은행의 모 바일뱅킹인 우리WON뱅킹으로 접속해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각 사의 금융과 플랫폼 기술로 △오픈 API 연동을 통한 비대면 대출 신청 △고객 맞춤 디지털 금융상품 및 서비스 공동 개발 등 혁신사업 발굴을 위해 협력한다. 양사는 금융 ·플랫폼 융합 서비스 개발및 협업 확대하고 신규고객 유치 등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 행장은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 카카 오페이와 제휴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고객 중심의 편리한 금융서비스 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한 양 사의 새로운 인연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적 극적인 협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일부터 네이버 지도에 우리은행 영업점 대기 고객 수 제공 및 모바일 번호표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중 은행들이 모바일 번호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포털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를 내놓은 것이다. 기존 서비스가 자사 앱을 통해 실시간 대기 인원을 확인하고 모바일 번호표를 발급하는

데 그쳤다면, 우리은행은 네이버에서 실시 간으로 실시간 창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사 채널이 아닌 외부 채널로 영업점 별 실시간 대기 고객수확인이 가능한 것은 국내 금융권 최초다. 우리은행은 추후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각 영업점 시간대별예상 대기 시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신용카드사, 상반기 순익 '1.1兆'

카드론 수익 늘고 대손비 줄어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상반기에 1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9% 증가한 수 치다. 카드 이용액 감소로 수익 증가세 는 둔화했지만, 비용이 이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 적'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의 순이 익(IFRS 기준)은 1조118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76억 원 증가했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945억 원 줄었 으나, 카드론 수익이 1243억 원 늘고 비용인 업무제휴 수수료와 대손비용 이 각각 1319억 원, 1050억 원 감소 한 덕분이다.

대손준비금 867억 원을 적립한 후에도 당기순이익은 1조314억 원으로지난해와 비교해 2609억 원(33.9%) 증가했다. 이는 대손준비금전입액이 지난해 1700억 원에서 올해

카드사 손익 현황

(단위: 억 원, 상반기 기준)

	2019년	2020년
총수익	124,149	124,805
총비용	114,744	113,624
당기순익(IFRS 기준)	9,405	11,181
대손준비금 전입액	1,700	867
대손준비금 적립 후	7.705	10.314
당기순이익(감독규정 기준)	1,100	10,011

※ 출처: 금융감독원

867억 원으로 줄어든 것이 주효했다. 카드사의 자산 건전성은 개선됐다. 총채권을 기준으로 한 6월 카드사 연체 율은 1.38%로 지난해 6월(1.61%)과

율은 1.38%로 지난해 6월(1.61%)과 비교해 0.23%포인트 떨어졌다. 신용 판매와 카드 대출 부문 연체율이 각각 0.11%포인트, 0.31%포인트떨어지면 서 연체율이 개선된 것이다.

카드사의 자본 적정성을 나타내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2.2%로 전년 동기(23.1%) 대비 0.9%포인트 떨어졌다. 레버리지배율은 5배로, 같은 기간 0.3배 상승했다.

문수빈 기자 bean@

은행, 채용문 빗장 풀었다

신한, 6개 분야 250명·우리, 3개 분야 200명 선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하반기 신입사 원 선발에 나서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됐 던 금융권 채용 시장이 온기가 돌기 시작 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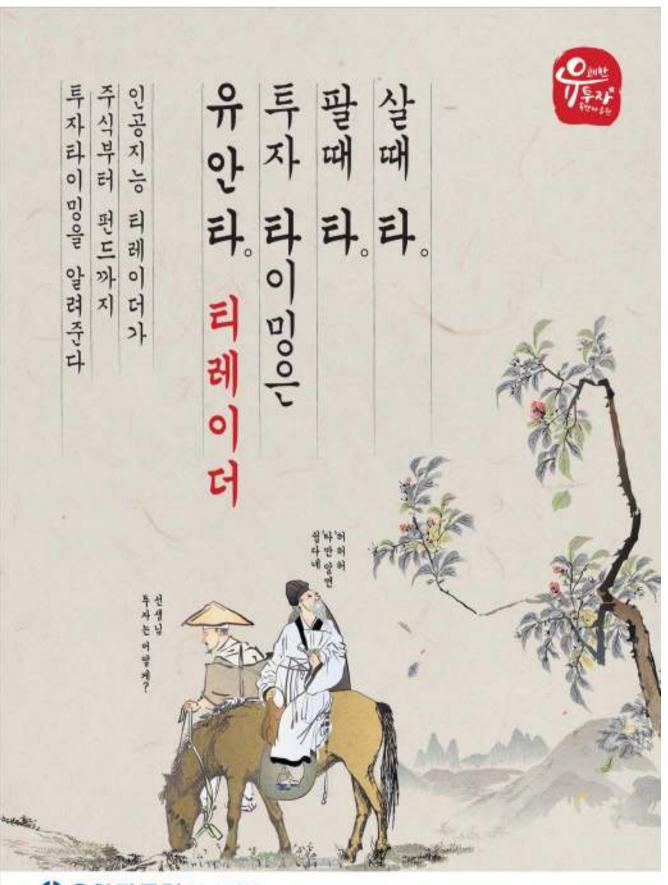
14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신입행원 공개채용(공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 로나19로 상반기에는 공채를 선발하지 못 하고 디지털 인재만 채용했다.

신한은행의 하반기 채용 부문과 방식은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 △기업금융 ·자산관리(WM) 경력직 수시채용 △디 지털·정보통신(ICT) 인력 수시채용 △디 지털·정보통신(ICT) 수시채용 석·박사 특별전형 △ICT 특성화고 수시채용 △전 문분야 맞춤형(Bespoke) 수시채용 등이 다. 총 6개 분야에서 250명을 선발한다. 일반직 신입 행원 채용은 서류 전형, 필기 시험, 직무적합도 면접, 최종 면접 순으 로 진행된다. 이 중 직무적합도 면접은 코 로나19 확산을 막고자 화상 면접으로 진 행되고 AI로 역량을 평가하는 등 지원자 를 다각도로 분석한다. 기업금융·WM 경 력직 수시 채용은 앞서 4월 신설한 기업금 융 경력직 수시 채용에 WM 직무를 추가 한 것이다.

디지털·ICT 수시 채용과 ICT 특성화고 수시 채용은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 디지 털·ICT 수시 채용 석·박사 특별 전형은 올해 신설됐다. 비스포크 부문은 다음 달 진행할 예정으로 IB, 금융 공학, 디지털 기 획, 전문 자격증 등 전문 분야에 특화된 인 재를 중심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이날 하반기 신입 행원 공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일반, 디지털, IT 등 총 3개의 분야에서 200여 명을 채용한다. 지원자는 서류 전형, 필기 전형, 실무자 면접, 임원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우리은행은 1차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AI 역량검사를 도입했는데, 우리은행 관계자는 "면접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지원자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해다

한편,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아직 구체적 인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하 반기 공채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 다. 통상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하반기에 공채 일정을 진행했다. 상반기 280명을 선 발한 농협은행은 다음주 하반기 채용 계 획을 최종 결정한다. 문수빈기자 bean@



유안타증권 元大證券

티레이더 www.tRadar.co.kr | 고객센터 1588-2600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성, 환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비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순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 온라인 주식대매수수로는 0,065% 등이며,(해외주식 수수로는 홍콩 0,3%, 상해A 0,3%) 기타수수료 및 예때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레이더, 티레이더팬드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의달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10-62호(2019,02,28)

영상·게임 동시에…뉴 폼팩터 'LG 윙'

세컨드 스크린 편의성 높여 두 개의 앱 동시 사용도 가능 낙하 감지, 카메라 자동 감춤 온라인 공개 내달 국내 출시

LG전자가 평상시에는 일반 스마트폰 처럼 사용하다 메인 스크린을 시계방향 으로 돌려 숨어 있던 세컨드 스크린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폼팩터 (Form factor) 스마트폰을 선보였다.

LG전자는 14일 온라인 공개행사를 열고 전략스마트폰 'LG 윙 (LG WING ·사진)을 공개했다. 'LG 윙'은 '익스플로러 프로젝트'의 첫 번째 제품이다. '익스플로러 프로젝트'는 스마트폰의 진화된 사용성에 무게를 두고, 성장 가능성있는 영역을 선제 발굴해 나가겠다는 LG 스마트폰의 혁신 전략이다.

'LG 윙'은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바 (Bar) 타입 스마트폰의 편의성에 '스위블 모드(Swivel Mode)'로 기존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더한 제품이다.

스위블 모드에서는 하나의 애플리케 이션으로 두 화면을 모두 사용하거나,



두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도 있다. 유튜브와 같은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때, 메인 스크린으로 영상을 보면서 세컨드 스크린으로는 재생, 빨리 감기 등 영상 제어를 할 수 있다.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 도 가능하다. 메인 스크린으로 대화면 영상을 시청하면서 세컨드 스크린으로 친구와 채팅을 하거나, 검색할 수도 있 다. 또 메인 스크린을 세로로 돌려 내비 게이션을 사용하면서 세컨드 스크린으 로 음악을 고르거나, 전화 수신자를 확 인할 수도 있다.

'LG 윙'의 메인 스크린에는 '6.8형



20.5:9 화면비의 노치리스 올레드 풀비전 디스플레이(Notchless OLED FullVision Display)'가 탑재됐다. 일반 스마트폰과 달리 화면에 전면 카메라 영역이 없어 영상을 시청하거나 게임을할 때, 몰입감이 극대화된다.

LG전자는 '노치리스'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일체형 전면 카메라 대신, 별도의 3200만 화소의 팝업 카메라를 적용했다. 이 카메라는 평소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전면 카메라를 실행하면 본체 상단에서 나타난다. 후면에는 각각 6400만(광각), 1300만(초광각), 1200만(초광각) 화소 3개

의 카메라를 장착했다.

LG전자는 고객이 전면 팝업 카메라로 촬영 중 제품을 떨어트리는 경우를 대비해 가속도 센서가 낙하를 감지하면 바닥에 떨어지기 전 카메라가 다시 제품 안으로 들어가도록 설계했다.

LG전자는 'LG 윙'만이 가지고 있는 폼팩터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짐벌(Gimbal) 모션카메라' 기 능을 적용했다. 짐벌은 스마트폰이나카 메라 등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카메라가 흔들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을 만들 어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영상 촬영을 가 능하게 하는 전문 장비다.

LG전자는 '듀얼 레코딩(Dual Recording)' 기능도 선보인다. 후면 카메라와 전면 팝업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해 촬영자와 찍고 있는 화면을 함께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다. 'LG 윙'의 메인 스크린이 견고하고 부드럽게 회전할 수 있도록 '모바일용 초소형 힌지(Hinge · 경첩)'도 자체 개발했다. 이 힌지에는 특수 설계된 '유압식 댐퍼' 기술이 적용돼화면이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해준다. 'LG 윙'은 내달 국내를 시작으로 북미, 유럽 등에 차례로 출시된다.

권태성 기자 tskwon@



삼성·디스트릭트, 콘텐츠 파트너십

삼성전자는 14일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 '디스트릭트(d'strict)' 파트너십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디스트릭트는 국내 최고 수준의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로, 지난 5월 서울 삼성동 SM타운 외벽에 설치된 약 1620㎡ 규모의 초대형 삼성 LED 사이니지를 통해 입체적 파도 영상(사진)을 선보여 주목을 받기도 했다. 양사는 뉴욕 타임스스퀘어, 밀라노 두오모 성당 등 글로벌 랜드마크에 설치된 삼성 LED 사이니지를 통해 공동개발한 새로운 콘텐츠를 연내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롯데알미늄, 배터리 양극박 증설

롯데알미늄은 14일 경기도 안산 반월산 업단지에 있는 롯데알미늄 안산 1공장에 서 2차전지용 양극박 생산라인 증설 준공 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 BU장 및 조현철 롯데알미늄 대표가 참석 했다. 양극박은 2차 전지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양극 활물질을 지지하는 동시에 전자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소재이다. 높은 열전도성으로 전지 내부의 열 방출을 돕는 역할도 한다. 총 280억 원을 투입한 이번 증설이 마무리되면 롯데알미늄의 2 차전지용 양극박 생산능력은 1만2000톤 (t)까지 늘어난다.

특히 기존 식품용 알루미늄박 생산설비 와는 분리한 양극박 전용 생산설비를 도입 하고, 디지털기술(DT) 기반의 품질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교현 화학BU장은 기념사에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용 2차전지 양 극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국내외 생산 라인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삼성 '갤S20 팬에디션' 초청장 날렸다

23일 하반기 세 번째 언팩 색상·디스플레이·배터리 등 팬 요구사항, 기기에 반영

삼성전자가 갤럭시 팬들을 위한 새로 운 스마트폰을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23일 오후 11시(한국시간) '삼성 갤럭시 언팩 포 에브리팬 (Samsung Galaxy Unpacked for Every Fan·모든 팬을 위한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를 온라인을 통해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월 '갤럭시노트20'과 이달 초 '갤럭시 Z폴드2'에 이어 3번째로 열리 는 온라인 언팩이다.

이번 언팩에서는 '갤럭시S20 팬에디 션(FE)'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갤럭 시 언팩 초청장은 갤럭시S20 FE 색상 을 강조한 3종으로 제작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갤럭시의 가장 열렬한 팬인 삼성 멤버스 회원들을 대상 으로 가장 선호하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특징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국내를 비롯해 미국 영국 인도 인도네시 아 브라질에 있는 1만350명의 삼성 멤 버스 회원들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가 신제품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희망하는 갤럭시 기기 색상은 1 위 네이비(43%) 2위 라벤더(41%) 3위 민트(39%)이며, 카메라 기능 중 가장 만족하는 기능은 슈퍼 스테디(54%) 야 간모드(50%) 싱글 테이크(29%) 8K 동영상(24%)과 스페이스 줌(20%) 순 이었다.

가장 만족하는 디스플레이 기능은 120Hz 고주사율(58%) 다크 모드 (38%)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 (32%) Always-on display(올웨이즈 온디스플레이) (27%) 엣지 디스플레이 (22%) 순이었다. 사용 후 가장 만족하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능은 1위가 하루 종일 사용 가능한 배터리(54%) 2위가 방수·방진(50%) 3위가 확장 가능한 메모리(35%)였다. 송영록 기자 syr@

車 업계 "하반기 내수 침체 우려"

개소세 감면 확대 · 상용 전기차 보조금 추가 요구

자동차 업계가 정부의 내수 지원책이 줄 어든 하반기부터 판매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1톤 트럭 등 상용 전기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상반기에 모 두 소진돼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국내 완성차 업체(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 ·르노삼성·쌍용차) 영업본부를 대상으로 '자동차 마케팅 전략 면담조사'를 실시 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계는 공통으로 하반기 내수 침체를 우려했다. 7월까지는 신차효과 등으로 성장세가 유지됐지만, 8월 이후부터는 개별소비세 감면율 축소, 노후차 교체지원 일몰 등 세제 혜택 축소의 영향이 본격화하며 내수가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년 대비 내수 판매량은 6월에 41% 증가했지만, 8월에는 5.6% 감소했다.

업계는 하반기에 내수가 정체 혹은 감소 하며 올해 연간 내수가 전년 수준(152만 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에도 18종의 신차가 출시될 예정이지만, 부분 변경 모델의 비중이 높아 상반기를 뛰어넘 는 신차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 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포터 EV, 봉고 EV 등 소형 상용차의 판매가 크게 늘며 상 반기에 모든 보조금을 소진한 것으로 나타 났다. 승용차 중에서는 테슬라의 판매가 급증했지만, 국산 전기차 판매는 상대적으 로 저조했다.

KAMA는 이번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개소세 감면율 확대 (30%→70%), 상용차 취득세(4~5%) 감면 검토 △노후차 조기 폐차 보조금 등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안내 강화 등의 내용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위축 우려가 8월부터 현실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수요가 본격회복되기까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등 정부의 내수진작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유창욱 기자 woogi@



현대차, 디지털 키 기반 대리운전 서비스

'픽업앤대리' 내달 전국 확대 스마트폰으로 '차량 키' 전달

현대지동차는 디지털 키를 기반으로 공 간 제약을 극복한 새로운 생활 밀착형 서 비스를 14일 출시했다.

새롭게 선보인 서비스는 차량과 고객의 위치가 다르더라도 디지털 키를 활용, 전 문 업체가 차량을 픽업하고 대리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한 '픽업 앤 대리' 서비스가 대 표적이다. 10월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 국으로 확대 예정이다.

지난해 8세대 쏘나타 출시와 함께 첫선을 보인 디지털 키 옵션은 고객의 선택비

중이 70%에 육박할 만큼 인기다. 현대차가 픽업 앤 딜리버리 서비스를 론칭한 것은 이런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전략이다.

이번 신규 서비스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간의 근거리 무선통신(NFC) 및 저전력 블루투스(BLE) 통신을 기반으로 디지털 키의 공유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픽업 앤 대리'와 '픽업앤딜리버리'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현대 자동차 디지털 키 회원 가입 후 전용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현대차는 디지털 키기반 신규 서비스 런칭을 기념해 '픽업 앤대리'와 '픽업앤딜리버리' 서비스 첫 결제시 전 고객 1만 원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김준형 기자 junio@

제주항공 국내선 5000원 특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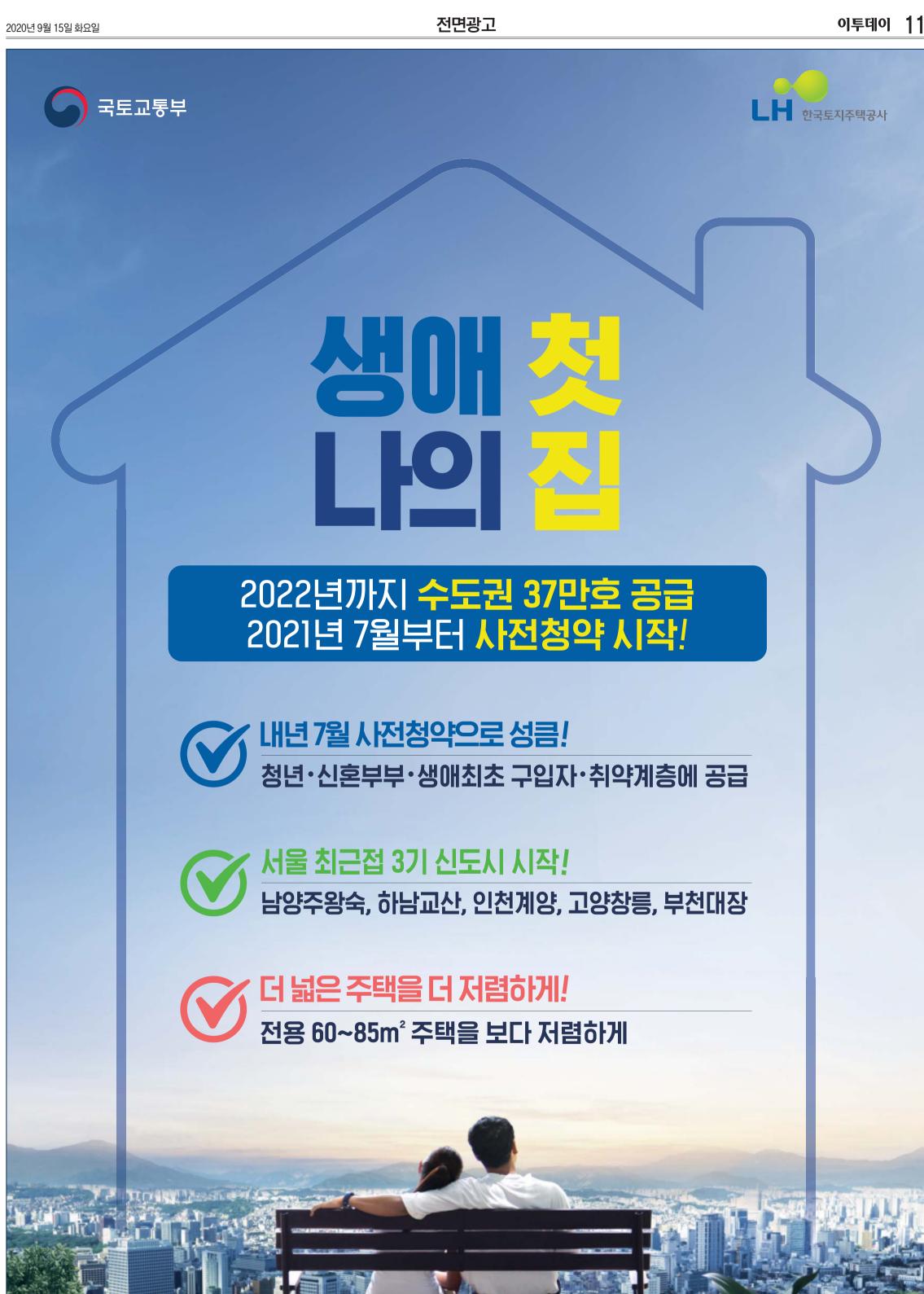
제주항공은 국내선 특가 항공권 이벤트 를 이틀 연속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48시간 타임어택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 48시간 동안 진행된다. 출발 기간은 이벤트 기간을 포함해 이 날부터 30일까지다.

항공권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한 편도 운임총액기준 △청주~제주 1만 500원 △대구~제주 1만900원 △광주~제주 1만900원 △리포~제주 1만2500원 △여수~제주 1만 4900원 △김포~부산 1만7900원 △김포~여수 1만8900원 △김포~광주 1만4900원 △광주~부산 4만5900원부터 판매한다.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 탑승이가능한 국제선 항공권도 4만3000원부터 할인판매한다.

15일부터는 열흘간 매일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 한 특가 항공권을 첫날은 5000원, 다음날은 6000원 등 24일까지 하루에 1000원씩 가격 을 올려서 매일 100석씩 오픈한다.

대상 노선은 김포~부산·제주 노선과 광주·청주·대구·부산~제주노선등국내선6개 노선이다. 탑승 기간은 11월 1일부터11월 30일까지다. 한영대기자 yeongdai@



PC방 다시 열었지만… 빡빡한 운영수칙 '한숨'



서 'PC방 운영조건 해제 및 피해 보상 촉구' 기

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 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되고, PC방이 고 위험군에서 제외되며 영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PC방 업주들은 영업 재개 조건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중앙회, 한국 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등 PC방 관련 7개 단체로 구성된 PC방 특별대책 위원회는 14일 국회 앞에서 PC방 운영 조건 해제 및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촉구 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김병 수 PC방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관계 자 9명이 참석했다.

PC방이 영업을 재개했지만, 방역수 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미성년자의 출입은 금지되고 '한 칸 띄어 앉기'를 통해 매장 좌석 내 이용 인원이 제한된 다. PC방 내에서의 음식섭취도 금지된 미성년자 출입하면 안되고 영업장 내 음식섭취도 금지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대책위 "영업재개 조건 완화 실제 피해에 걸맞은 보상을"

다. 해당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영 업중지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PC방대책위는 방역수칙에는 공감하 지만, 미성년자 출입금지와 음식섭취 금 지는 답답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똑같은 식사가 가능한 카페와 식당은 음식섭취 를 허용하면서 PC방만 금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PC방은 인

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분류되 지만, 휴게음식점을 추가해 음식물을 제 공할 수 있다. 다만 라면이나 볶음밥과 같은 간단하게 끓이거나 데워서 제공하 는 음식들로만 한정돼 있어 일반 음식점 보다 안전하다는 주장이다.

미성년자의 출입을 막는 것 역시 실효 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PC방은 'ㄷ' 자형 내부 칸막이로 구성돼 안전하고, 대 화하더라도 헤드셋의 마이크를 통한 이 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마주 보고 대화하 는 경우가 거의 없다. PC방이 고위험시 설로 분류된 근본적인 원인은 등교 수업 의 영향이 있기 때문인데, 이마저도 제한 된 지금 미성년자의 출입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견해다.

경기도에서 PC방을 운영하는 한 업자 는 "PC방에서의 매출 절반가량이 음식 물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막는 것 은 영업 재개를 안 하는 것만 못하다"라 며 "음식물을 판매하지 못하면 영업을 재 개한다 해도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PC방대책위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영업손실 을 겪고 있는 PC방에 200만 원 지원책 을 발표했지만,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임 대료, 전기료, 금융비용 등 고정비용만 월평균 1000만 원기량의 지출이 발생하 는데 200만 원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김병수 PC방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어 앉기, 음식 물 판매·섭취 금지는 PC방 문만 열고 아 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 르겠냐"고 주장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이통사, 하반기 채용도 비대면으로 진행

하반기에도 통신사들의 비대면 채용 이 계속되고 있다. 필요한 인력 수급을 위해 통신사별로 채용 방식도 다양화 하 고 있다.

14일 SK텔레콤은 하반기 채용에 1대1 '인택트(In:tact)' 채용 상담을 도입한다 고 밝혔다. 이날부터 하반기 정기 채용과 수시채용(직무경력 3년 미만의 지원자) 지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1대1 영상통화 기반의 인택트 채용 상담을 통해 개별 지 원자들의 궁금증을 일일이 해결하고 온라 인 채용설명회 'T 커리어 캐스트'를 통해 담당 실무자가 직접 채용 과정과 직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정기채용 의 지원서 접수는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며, 수시채용은 9월 14일부터 10월 2일까 지다.

KT는 9월 7일부터 신입사원 채용을 위 한 인턴십 모집 서류접수를 시작했다. 모 집분야는 △마케팅&세일즈(Sales) △네

SKT '1대 1 인택트' 채용 상담 'T커리어 캐스트' 온라인설명회

KT, 온라인 인적성 검사 도입 '화상면접' 통해 400명 채용

LGU⁺, 디자인·UI·UX 분야 신입채용 연계한 공모전 개최

트워크 △기술직(IT) △연구개발(R&D)

총 4개 분야다. KT 그룹사 역시 각 사별 계획에 따라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 체 채용 규모는 연초 계획을 그대로 유지 한 400명 안팎으로, 수시채용과 인턴십 채 용을 모두 합친 것이다. KT는 새롭게 도 입한 온라인 기반의 인적성 검사와 화상면 접으로 전형과정 전반에 '언택트'를 도입 하겠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공모전을 통해 디자인과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 험), 고객 리서치 분야 우수 인재를 채용 한다. 공모 분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 로운 고객가치를 전달하는 △신규 서비스 디자인 △UX/UI 전략 △고객 인사이트 제안으로 총 3개이다. LG유플러스는 △ 고객·시장 분석 능력 △고객가치 기반 UX 도출 능력 △쉽고 재미있고 고객에게 매력 적인 디자인 표현 능력 △논리성, 창의성 및 사업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작품을 평 가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이달 24일 홈페 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이후 10월 중 인적 성 검사와 인공지능(AI) 영상 면접, 1차 면접을 거쳐 다른 직무 신입 채용 지원자 들과 함께 11월에 인턴십을 수행하게 된 다. 12월 최종 면접 후 2021년 1월 LSR/ UX담당 신입사원으로 LG유플러스에 입 사한다. 김우람 기자 hura@

Nano-X Imaging Ltd 주가 추이 (단위: 달러, NNOX 나스닥 증권거래소) 9월 1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박정호 SKT 사장 '신의 한 수' 나녹스 투자로 600% 평가이익

이스라엘 의료 벤처기업 장비구독 사업 잠재력 확인 지난해 6월 초기투자 참여 나스닥 상장으로 '대박'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의 헬스케어 사 업 투자가 빛을 내고 있다.

14일 나스닥에 따르면 나녹스의 주가는 지난주 64.19달러로 전일 대비 15.88달러 (32.87%) 상승 마감했다. 나녹스는 지난 달 21일 18달러에 상장했다.

나녹스는 '반도체 기반 디지털 엑스레이 (X-ray) 발생기' 상용화와 양산에 근접한 기업으로, 이스라엘에 본사를 두고 있다. 글로벌 기업인 후지필름, 폭스콘 및 요즈 마 그룹 등 유력 투자회사가 나녹스에 투 자했다. '반도체 기반 디지털 엑스레이'는 필라멘트 기반 아날로그 방식의 엑스레이 촬영을 반도체의 나노 특성을 활용한 디지 털 방식으로 바꾼 차세대 의료 장비 기술

박 사장은 지난해 6월 나녹스의 기술 잠 재력을 확인하고, 초기투자에 참여했다.

SK텔레콤 올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초기 투자한 나녹스 지분율 은 6.6%로, 적시된 평가 가치는 약 156억 원이었다. 나녹스의 현재 주가로 환산한 시가총액은 약 3조4024억 원에 이른다. 상장 이후 변동된 SK텔레콤 지분율 5.8% (260만 여주)의 가치는 1973억 원을 넘

SK텔레콤은 주당 매입가가 8.82달러로 약 2293만 달러(271억 원)를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투자 대비 6배 이상 가치가 상승

한 셈이다.

나녹스는 '디지털 X-ray·CT 기반 차세 대 영상촬영 기기'를 개발해 미국 식품의 약국(FDA) 승인 절차와 제품 양산 준비 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SK텔레콤이 나 녹스에 주목한 것은 의료기기 구매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구독 모델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다. 나녹스의 과금은 사용량에 따 라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Pay-per-Scan)이다. 3~4년 이내에 1만5000 건의 판매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4520건의 판매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 려졌다.

의료 장비의 구독 모델은 의료진의 기기 구매부담을 경감시켜 기기 보급 확산을 유 도할 수 있어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증 권업계에 따르면 의료영상 분야 내 구독 모 델의 잠재 시장 규모는 2026년 25억 달러 (2조9607억 원)로 추정된다.

박 사장은 나녹스 지분 투자 외에 사업도 직접 나선다. 실제 나녹스로부터 차세대 영 상촬영기기의 한국, 베트남의 독점 사업권 을 확보했다. 향후 해당 국가의 사용 허가 절치를 거쳐 기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 밖에도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을 공동 설립해 신사업 시장을 개 척하고 있다.

SK텔레콤은 3월 11일 뉴레이크얼라이 언스와 함께 손잡고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회사 '인바이츠 헬스케어'를 설립했다. SK 텔레콤은 ICT 역량을 바탕으로 헬스케어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해 자사 내 관 련 사업부를 분사, 헬스케어 사업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파트너들과 협력해 '인바이츠 헬스케어'를 설립했다.

김우람 기자 hura@







KAIST 17대 총장 후보에 김정호·이혁모·임용택 교수

KAIST 교수협의회 총장후보추천위원 회는 최근 총장후보지원자 중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통해 총장후보 선거에 임할 3인 의 후보자로 김정호〈왼쪽 사진부터〉, 이혁 모, 임용택 교수(가나다순)를 선정했다.

김정호 교수는 전기및전자공학부 학부 장, 연구처장을 역임했고 현재 글로벌전략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이혁모 교수는 신 소재공학과 학과장을 역임했고 중소벤처 기업부 기술혁신추진위원장, 기초과학연 구원 이사를 맡고 있다. 임용택 교수는 홍 보국제처장, 글로벌협력연구본부장, 한국 기계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교수협의회는 17일 오후 4시 3인의 총장 후보들에 의한 합동 소견발표 및 토론회를 KAIST KI빌딩 퓨전홀에서 개최할 예정이 며, 10월 6~12일 평교수들의 온라인 선출 투 표에 의해 2인의 후보가 확정된다. 17대 총 장은 내년 1월 중에 KAIST 이사회에 의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재훈 기자 yes@

"코로나 피해 최소화"… 렌털업계 '할인공세'

방문서비스 취소 · 연기 잇따르자 신규고객 할인 등 프로모션 강화

렌털 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할인 공세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 SK매직, 청호나이스, 교원 등 렌털 업계가 9월 할 인 판촉 강화에 나섰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가 강화되면서 렌털 방문 서비스의 취소・ 연기가 증가하자 타격을 만회하기 위한 것

SK매직은 수도권 2.5단계가 시행된 8월 30일부터 2주 동안 MC(고객관리 전문인 력)에게 정기 점검을 연기하도록 했다. 전 날 정부가 수도권에 내려졌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낮춰 시행하면서 SK매직은 현재 점검 서비스를 정상 진행하 고있다.

청호나이스는 8월 렌털 방문 취소·연기 비율이 10%대 초반을 기록했다. 코웨이도 8월 방문 관리 서비스 연기 건이 5~7월보 다 소폭 증가했다. 다만 여타 업체와 마찬 가지로 연기 건이 최고조에 달했던 3월과



업체들은 영업 기 회가 다소 줄어든 만큼프로모션을강 화하고 있다. 코웨 이는9월한달동안

공기청정기 신규고

객을대상으로렌털

료를 할인한다. 정수기 품목도 렌털료를 면제 및 할인해주는 '국민 응원 특별 프로 사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비교해 4분의 1수준 이라고 설명했다.

코웨이 AIS 정수기.

모션'을 진행한다. 여기에 더해 얼음정수 기를 5년 이상 쓴 장기 고객을 위해 신규 얼음정수기 렌털료를 할인해주는 고객 감 청호나이스는 냉온정수기, 냉정수기, 공 기청정기 제품에 대한 렌털료 할인 프로모

션을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 SK매직은 안마의자 할인 판매를 한다. 공식 온라인 몰 'SK매직몰'에서 진행되며 최대 100만 원 이상 안마의자를 할인 판매하며, 9월 한 달간 진행된다. 교원 웰스는 이달 25일 까지 정수기, 비데, 연수기 등 위생가전을 대상으로 렌털료 면제・할인 프로모션을 한

〈쿠팡·마켓컬리·SSG닷컴〉

새벽배송 선발주자들, PB 강화로 차별화 나섰다

현대百 등 대기업 도전 거세자 마켓컬리 '컬리스' 상품 확대 쿠팡은 PB 전담 자회사 설립 SSG, 신선식품 브랜드 론칭

이커머스가 선점한 새벽배송 시장에 롯데쇼핑의 롯데온과 현대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이 도전장을 던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기운데 선발주자인 쿠팡과 마켓컬리 등이 수성에 나서고 있다. 선발주자들은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경쟁력 차별화에 나서는 한편 충성고객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마켓컬리는 자체 PB 브랜드 '컬리스'의 상품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컬리스' 는 생산자와 고객, 모두를 위한 생각으로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유통을 모색하겠다는 컬리의 가치를 담은 마켓 컬리의 PB 브랜드로 올 초 선보였다.

2월 동물복지 우유를 시작으로 5월에는 R15 통밀빵, 8월 돈육햄, 9월 아삭한 열무 김치 등 매일 식탁에서 만날 수 있는 신제 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9월 중에는 성장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콩나물, 숙주, 두부 등 건강한 식재료와 물만두, 계란 장 등을 출시하며, 연내 돈까스, 치즈롤까스 등 간편식과 비식품라인인 칫솔을 출시할 계획이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5년동안 좋은 제품을 소성해 팔다 보니 관련 기준이나 제품을 골랐던 노하우로 직접 기획해 '컬리스'를 내게 됐다"면서 "건강을 생각한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쿠팡도 PB상품을 빠르게 늘리며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2017년 생활용품, 반려동물용품 브랜드 '탐사'로 PB 시장에 뛰어든 쿠팡은 이어 식품 '곰곰'과 생활용품 '코멧', 가전 '홈플래닛', 의류 '베이스알파' 등 총 12개 PB브랜드를 운영 중이다. PB카테고리인 '쿠팡 온리'로 판매되는 상품 수도 지난해 말 700여 개에서 현재 1756개에 이른다.

쿠팡은 지난 7월에는 아예 PB 상품을 전담하는 자회사 CPLB를 출범했다. 이 업체는 제조사와 협업해 쿠팡 PB상품의 제작 및 판매를 전담한다.

지난해 3월 출범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



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빠른 속도로 몸집을 불리고 있는 SSG닷컴도자체 레이블에 공들이고 있다. 피코크와 노브랜드 등 모회사인 이마트의 PB 상품을 주로 팔던 SSG닷컴은 지난 6월 말 자체레이블 'SSG FRESH'를 론칭했다. 이 브랜드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는 신선식품이다.

'SSG FRESH'이름으로 선보이고 있는 제품은 채소 160종과 정육 70종, 과일 50종, 수산물 50종 등 총 330여 종으로 론칭 1달 만인 지난 8월 관련 매출은 7월에

비해 15% 증가했다. SSG닷컴 관계자는 "산지 농가에서 직송해 유통단계를 대폭 줄여 경쟁력 있는 가격대에 판매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새벽배송 선두업체들의 PB 강화는 충성 고객를 붙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똑 같은 제품을 빠르게 전달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이 업체에 꼭 들러야 하는 유인 효과 를 내기 위해서다. 이는 최근 오프라인유 통 공룡인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이 연이 어 새벽 배송 시장 진출에 진입하면서 이들 을 방어하기 위한 카드기도 하다. 업계에 따르면 2015년 100억 원에 불과하던 새벽배송 시장 규모는 지난해 8000억 원대로 커져 5년 만에 80배 성장했다.이는 이커머스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15%를 훨씬 웃도는 규모로, 관련 업계가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롯데쇼핑의 롯데온은 지난 7월 '새벽에 ON'이라는 타이틀로 새벽배송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현재 김포 온라인 전용센터를 활용해 서울 강남과 송파, 마포, 영등포등 서울 10개 지역을 비롯해 경기도 김포시와 고양, 성남, 하남, 인천 계양·부평·서구까지 서비스 하고 있다. 연내에는 경남일부와 부산지역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역시 같은달 온라인 식품전 문몰 '현대식품관 투홈'을 론칭했다. 이 서 비스는 백화점 식품관에서 판매되는 신식 식품, F&B(델리, 베이커리 등), 외부 유 명 맛집의 가공식품뿐 아니라 백화점 전문 식당가의 조리식품을 밤 11시까지 주문하 면 다음 달 아침 7시 전에 집으로 배송해주 는 서비스다. 새벽 배송 가능 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이다.

남주현 기자 jooh@

위드코로나 시대… '집콕' 늘며 동네상권 기지개

재택근무·온라인 수업 지속 편의점 등 주택가 상권 매출↑ 동네 기반 '당근 마켓' 급성장

위드코로나 시대 생활 반경의 중심 이 집으로 바뀌면서 동네 상권이 살아 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 부분의 시간을 도심이 아닌 집이나 동 네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 문이다.

생활 반경의 변화는 소비패턴의 변화를 이끌면서 자연스레 유통 지형 변화로 이어진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형 또는 집객시설 인근 매장은 매출이 떨어진 반면 주택가 상권은 매출이 오르며 상권별 매출 희비가 엇갈리는가 하면 동네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은 빠른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동네 상권의 약진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이른바 '슬세권(슬리퍼로 이 동가능한 상권)' 유통채널이 편의점이 다. 코로나 사태 이후 다른 상권 대비 주거지 인근 편의점 매출이 선방하고 있어서다.

. 14일 편의점 업체 A사에 따르면 8월

16일부터 9월 10일까지 가족주택, 독 신자주택 인근 점포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17.0%, 18.2% 늘었다. 편의점 업 체 B사의 경우도 7월부터 8월까지 수 도권의 가족형, 소가구형 점포 매출이 각각 6.8%, 8.9%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A사의 병원, 대학 인 근 점포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24.5%, 45.1% 급감했다. B사 역시 대학가, 관 광지 점포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11.6%, 4.1% 줄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의 지속,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 기간 동안 밤 9시 이후 음식점 영업 금지 등의 영향으로 도심에 위치한 점포 매출이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신 '근'처의 당근마켓'이라는 친 근한 슬로건을 앞세운 동네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은 지역생활 커뮤 니티 서비스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고

당근마켓은 전국 6577개 지역에서 동네 주민들을 연결하고, 이웃간 중고 거래를 비롯해 각종 소식과 정보를 주 고 받는 지역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다.

당근마켓에 따르면 8월 월간 순이용

자수는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국 내 전자상거래 앱 1위인 쿠팡(약 1600 만 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1번가 (약 1000만 명) 월간 순이용자수와 비 슷한 수준이다. '2015년 판교장터'로 시작한 당근마켓의 이용자 수는 최근 1 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용자 1인 당 월평균 24회, 하루 20분씩 사용했고, 누적 다운로드 횟수는 2000만을 넘 어섰다.

당근마켓은 서비스 강화를 통해 동네 기반 플랫폼으로서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동네생활'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오 픈하고 동네 상권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연결하는 '내근처'서비스를 새롭게 선 보였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최근 상권 별 매출 등락에 대해 "상권별로 코로나 19의 영향이 각기 다르지만,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면서도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아무래도 재택 근무, 재택 수업 등이 늘면서 주택가 인근점포가 수혜를 보는 추세가 이어질 수있다"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롯데마트 미니 사과 '루비에스' 판매

롯데마트는 국산 신품종인 '루비에스' 미니 사과를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루비에스는 2015년

농촌진흥청에서 육종, 선발한 국산 품종으로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며, 일반 사과 대비 크기는 절반도 채 안 되지만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다. 경북 영천에서 재배한 국산 품종의 사과인 루비에스는 탁구공만 한 크기에 무게는 약 70~80g 정도로 8월 말에 수확이 이뤄진다. 롯데마트는 2019년 영천 루비에스 유통센터·작목반과 협업해 2톤가량의 루비에스를 출시해 완판했으며, 올해도 50톤가량을 매입해 선보일 계획이다.

"차례상도 간편식으로 준비하세요"

대상, 참떡갈비 등 제수 음식 할인 동원 '프리미엄 차례상' 물량 늘려

추석을 앞두고 식품업계가 발 빠르게 제 사용 가정간편식(HMR)을 내놓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다 같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기보단 간소한 상차림 문화가 퍼지면서 명절 음식용 HMR의 수요는 예년보다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은 추석을 앞두고 간편하게 조리가 능한 제수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였다. 집으로ON '참떡갈비' 3개 묶음은 22%, 청정원 '민속왕만두' 3개 묶음은 25% 저렴하게 제공한다. '집으로ON '서울식 양지설렁탕', '대구식 파육개장' 각 3개 묶음은 26% 할인가에 살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집에서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내식 트렌드에 발맞춰 HMR 선 물세트 제품군을 강화했다. 기존 상온 제 품 위주로 선물세트를 꾸린 것과 달리 이 번 추석에는 냉동과 냉장 제품으로 구성된 세트를 선보였다. 특히 '비비고 한상차림 선물세트'에는 비비고 남도떡갈비, 비비고 김치 왕교자, 비비고 도톰 동그랑땡, 비비 고 잔칫집 모둠잡채 등으로 준비했다.

동원그룹의 더반찬&은 '프리미엄 차례 상'을 준비했다. 차례상을 간편하게 받아 볼 수 있게 기획된 제품으로, 2018년 추석 출시 이후 명절마다 한정 물량 완판을 기 록 중이다. 특히 이번 명절은 코로나19 여 파로 주문량이 늘 것을 대비해 준비물량을 작년 대비 50% 늘렸다.

LF의 프리미엄 씨푸드 레스토랑 마키노차야는 추석맞이 '한가위 상차림 팩'을 14일 처음으로 선보였다. 잡채, 칠리새우, 영양밥, 모듬전, 과일 3종 등으로 구성된 '명절파티팩' (가격 15만 원)과 모싯입송편 9개, 산자 1팩, 깐밤 9알, 대추 80g 등으로 구성된 '조상님께 드리는 정성스런차례상' 콘셉의 '명절 차례팩' (가격 15만원) 등이 준비됐다.

올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추석 연휴기간 동안 지역 이동이 자제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추석 상차림 주문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혜지 기자 heyji@

이마트 '일렉트로맨 레트로 냉장고' 술장고로 딱

이마트가 150 l 용량의 일렉트로맨 레트로 냉장고를 선보인다.

이마트는 1인가구 뿐 아니라 홈술족의 '술장고(술 전용 냉장고)'로도 활용 가능한 '일렉트로맨 레트로 냉장고 $150\ l$ ' 〈사진〉를 17일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일렉트로맨 소형냉장고 3종($46\ l$, $79\ l$, $124\ l$)을 선보였던 이마트는 이번에 $150\ l$ 를 더해 라인업을 총 4개로 확대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일렉트로맨 레트로 냉장고 150 l는 냉장·냉동실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냉동이 가능한 소형 냉장고가 있으면 좋겠다는 고객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용량은 각각 냉장실 98 l, 냉동실 52 l로 1인 가구가 사용하기에

적당하다.

특히, 상단에 자주 사용하는 냉장실을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전자식 온도제 어, 간냉식 냉기제어 기능을 통해 성에가 생기는 것을 방지했다. A/S는 전국 70여 개 위니아 대우 서비스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가격은 44만9000원으로 출시를 기념해 30일까지 행사카드(삼성, KB카드)로 구 매하면 5만 원 할인된다.

이마트에 따르면 일렉트로맨 소형 냉장 고는 1인가구, 홈술족 등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며 출시 후 현재까지 총 1만 여대가 판 매돼 전체 소형 냉장고 매출을 견인했다. 전체 냉장고 판매 수량 중에서 300 l 이하 소형 냉장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렉트로



맨 냉장고 출시 전인 2018년엔 2.9%에 불과했 지만, 출시 후 (2019년 5월~ 2020년 8월) 9.5%까지 상승 했다.

코로나로 집에 서 술을 즐기는 홈술족이 늘면서 '술장고'수요는

올해 들어 한층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마트가 단독 판매하는 맥주 전용 냉장고 '비어텐더'는 4월 출시 후 현재까지 9200개가 판매됐으며, 트레이더스에서 판매하는 와인 전용 냉장고 '더 와인셀러'는 2월 출시 후 현재까지 2000여개 팔렸다.

남주현 기자 jooh@

너무 뜨거운 IPO시장… "냉정하게 옥석 가려야"

올 공모주 청약에 몰린 뭉칫돈 150.9兆… 지난해 1.5배 공모주 배정 '하늘의 별따기' 장외시장·펀드로 열풍 확산 "비교기업군 산정방식 의구심… 공모가 제대로 분석 필요"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길 잃은 뭉칫돈이 '언택트(비대면)' '뉴딜' 바람을타고기업 공개(IPO)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 상장한 카카오게임즈까지 9개월 남짓 기간 공모주 청약에 쏠린 돈만 150조9000억 원에 달했다. 공모주 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대박'을 노리는 투자자 들이 IPO 시장에 대거 몰린 것이다.

시장이 과열된 크기 이상으로 공모 시장 에 대한 '거품'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한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일부 군소 펀드와 법인이 같은 공모가액을 기계적으 로 제출하면서 경쟁률을 부풀리고 공모가 액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상장 이 후에도 한 몫 챙기려는 투기세력 때문에 기업가치 이상으로 오르는 이상 현상이 반 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부터 지난 10일 상장한 카카오게임즈까지 올해 신규 상장 종목에 모였던 일반 청약 증거금은 총 150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 다. 이는 지난해 전체 증거금 99조4000억 원의 약 1.5배에 달한다.

지난해 신규상장 종목은 99개, 올해에 는 현재 45개로 종목 수는 지난해의 절반 도 안 된다. 2년 전인 2018년 98개 종목에 85조 원이 몰린 것보다도 크게 웃도는 수

공모주를 받기 힘들다고 판단한 투자자 들은 장외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예 상 공모가를 몇 배 웃도는 종목에 베팅하 는 투자자가 흔해졌다. 상장을 추진 중인 일부 회사의 주가는 연초 대비 2000% 넘 게 오르기도 했다.



키카오 계열사 중 '차기 IPO 주자'로 손 꼽히는 카카오뱅크 주식은 이날 장외시장 에서 1주당 12만4000원에 거래됐다. 시가 총액도 45조 원에 달한다. 시장 성격을 배 제하고 단순 비교로 놓고 보면 유가증권시 장에 상장된 전통 은행주인 KB금융지주 (15조9254억 원)와 신한금융지주(13조 7252억 원)의 3배 이상이다.

청약 열풍으로 경쟁률이 치열해지자 공 모주에 대한 직접 투자 대신 '펀드'라는 우 회 투자를 택하는 자금도 늘었다. 금융정 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공모주 물 량을 우선 배정받는 △일반 공모주펀드 (9123억 원) △하이일드펀드(1605억 원) △코스닥벤처펀드(4322억 원) 등에 총 1조5051억 원(11일 기준)의 자금이 유 입됐다.

전문가들은 공모주의 옥석을 가리려면 공모 가격을 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시장에서는 최근 상장한 기업의 공모가 산정 방식에 의구심을 갖는다. 지난 10일 상장한 카카오게임즈의 공모가는 희망 범 위의 최상단인 2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게임즈의 공모가 산정 을 위한 비교기업군에 중국 텐센트홀딩스 가 포함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높은 밸류 에이션을 적용받기 위해 비교기업에 시가 총액 751조 원에 달하는 텐센트홀딩스를 포함했다는 지적이었다. 카카오게임즈에 이어 초대형 IPO 대어로 주목받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역시 기업가치 산정 과정에 서 비교기업군에 사업구조가 유사한 SM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해 비교기업군 산정 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대표는 "최근 상장 종목마다 상장 직후 대박 움직임을 보이지 만, 증시 건전성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면 서 "최근 같은 대 국민적인 '주식 광풍'은 자칫 전 국민의 재정상태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더 늦기 전에 무분별한 IPO를 막고,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아시아나·현산·금호 주가 제자리 찾을까

인수합병(M&A)이슈가 사라진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과 금호 산업,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시장 평가 가 엇갈리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산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0.20% (50원) 하락한 2만4700원에 마 감했다. 금호산업은 1.19%(80원) 오 른 68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아시아나 항공은 이날도 2.46%(100원) 하락해 3965원으로 주저앉았다.

라진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현 산이 계약금 2500억 원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적정가치 상향요인이 많다"면 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M&A 불확실 성이 해소됐고, 인수무산에 따른 배당 확대 가능성이 있다"면서 매수 추천했 다. 라 연구원은 현산의 목표주가를 기 존 2만3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상 향 조정했다.

금호산업의 앞날에 대한 평가도 긍정 적이다. 김승준 흥국증권 연구원은 금 호산업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지분법 손익으로 잡히지 않고 재무제표에도 주 식평가 손실 정도의 영향만 있어 영향 은 작다"면서 "아시아나항공 회생에 금

HDC현산, M&A 불확실성 해소 배당 확대 가능성…"목표가 상향" 금호, 무산영향 작아 긍정적 평가 참고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이

아시아나항공은 자본조정 가능성 "투자의견 '보유' … 목표가 유지"

호산업이 지원해야 할 의무도 없다"면 서 목표주가를 9000원으로 제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디폴트 우려는 없지

만, 자본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삼성증권 박형준 연구원은 "회복이 어려운 여객 수요와 화물 일드 성장 둔 화를 반영해 올해 매출 추정치를 33% 하향하고 영업이익도 적자로 하향한다" 며 "채권단 관리에 들어가 디폴트 우려 는 해소됐지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적 자본 확충 및 자본구조 조정 가 능성이 있다"면서 투자의견 '보유'와 목 표주가 3500원을 유지했다.

이행보증금(구주계약금 2583억 원) 소송은 선부른 예측을 내놓지 못하 고 있다.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원은 "최근 HDC현산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실사 문제는 과거 한화-대우조선해양 사례를 라 말했다.

과거 한화는 2000년 대우조선해양 인 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3000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납입했으나 2009년 매각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산업 은행은 양해각서를 근거로 보증금을 돌 려주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산은 측이 한화에게 1000억원을 돌려주라"는 3심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한화는 "확인 실사를 하지 못했고 최종계약 체 결 전 필요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점 을 근거로 계약 무산의 주요인이 한화에 있지 않다는 점을 어필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1000억원을 돌려받 을 수 있었다.

박 연구원은 "금호산업과 HDC현산과 의 상세한 주주매매계약 내역을 알 수 없 으나 투명성 문제, 박삼구 회장의 공정거 래질서 위반 행위 등을 근거로 한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삼성전자, 7개월 만에 6만원대 회복

2.37% 오른 6만400원에 마감 外人 이달 들어 7252억 순매수

삼성전자가 7개월만에 6만 원대 주가를 회복했다. 14일 삼성전자는 유가증권시장 에서 전 거래일보다 2.37% 오른 6만400 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월 20일(6만 원) 이후 약 7개월 만에 6만 원선(종가 기 준)을 회복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달 들어 11.85% 오르며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 르면 외국인은 이달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7252억 원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종목 가 운데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주 등 호재가 잇따르면서 증권 사들이 실적 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8일에는 미국 1위 통신사업자이자 이동통신 매출 기준 세계 1위 통신사업자 인 버라이즌과 7조9000억 원(미화 66억 4000만 달러) 규모의 네트워크 장비 장기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한국 통신장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이다.

여기에 미중무역 전쟁의 수혜주로 부상하 면서 강세를 이어갔다. 미국이 통신기업 화



웨이와 반도체기업 SMIC에 대해 제재에 나 서자 시장에선 삼성전자의 수혜를 점쳤다.

아울러 이달 초 삼성전자는 미국 그래픽 카드 업체인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처 리장치(GPU)와 퀄컴의 5세대 이동통신 (5G) 칩을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이 어진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해 연저점 이후 삼성전자 주기는 코스피 상 승률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반도체 가격 하 락에 대한 우려, 이재용 부회장 기소 문제 등이 부담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3분기 소비자 가전(CE)과 IM 사업 부문 의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3분기 매출액을 전 분기 대비 24% 증가한 65조6000억 원, 영업이익을 35% 늘어난11 조 원으로 전망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카카오게임즈, 상한가 행진 '스톱' 9% 하락

外人 843억 · 기관 485억 매도 개인은 1709억…사흘째 '사자' 코스닥 시총 순위 3위서 5위로 거래대금은 1조6158억 '최고'

카카오게임즈가 상장 사흘째인 14일 지 난 이틀간 이어진 상한가 행진을 멈추고 하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카카오게임즈는 전 거래일 대비 9.00% 내린 7만 3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43억원, 485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주가 하락세를 이끌 었다. 반면 개인은 1709억원을 순매수하 며 사흘 연속 '사자'에 나섰다.

이날 카카오게임즈의 하루 거래대금은



1조 6158억 원으로 1조 2336억 원이 거래 된 삼성전자를 밀어내고 가장 많은 거래대 금을 기록했다. 3위인 현대차의 5508억 원의 3배 가량이 거래됐다.

특히 이날 두드러진 개인 순매수 금액으 로만 놓고보면 카카오게임즈의 이날 기록 은 코스닥 시장 증시 역사상 7번째로 많은 것으로 기록됐다. 코스닥 개인 순매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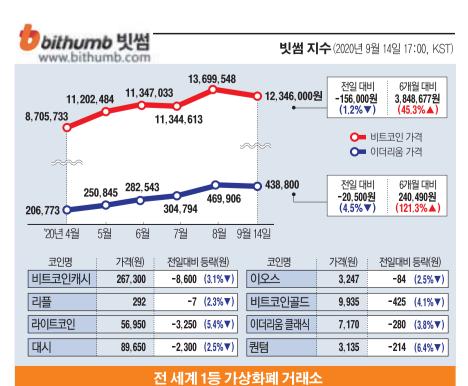
역사상 8번째도 지난 11일 카카오게임즈 의 1684억 원이 차지했다.

주가 하락 전환에 시가총액은 5조 4025 억원으로 전날의 코스닥 3위에서 5위로 내 려갔다.

앞서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10일 공모가 2배에 상한가까지 더해진 6만 2400원까 지 오르며 이른바 '따상' 으로 증시에 입성 했다. 이어 상장 이튿날도 상한가로 마감 했다.

카카오게임즈의 향후 주가 추이 역시 관심사다. 미래에셋대우가 4만2000원의 목표주가를 제시했고, 메리츠증권(3만 2000원)과 대신증권(3만3000원)의 목 표주가는 3만 원대에 불과한데 주가는 오 늘 하락에도 불구하고 7만 원을 넘은 상 황이다.

구성헌 기자 carlove@





강남 재건축 막히니 힘 받는 '리모델링'

송파 '아남' 등 5개 단지 시업 박차 잠원훼미리·개포우성9차도 속도 주거환경 개선…집값도 상승세 안전진단 등 기준 덜 까다로운데다 내력벽 철거 허용 땐 확산 기대

정부의 강도 높은 재건축 규제로 사업 추진이 힘들어지면서 리모델링 쪽으로 개 발 방향으로 튼 아파트 단지들이 늘고 있 다. 특히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수익성은 낮지만 입지나 교육, 인프라가 좋은 서울 강남권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속도 를 내고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오금동 아남아파트는 지난달 리모델링 사업 공사 를 위한 이주에 돌입했다. 1992년 지어져 올해로 준공 28년차를 맞은 아남아파트는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기존 299가구에서 328가구로 단지 규모를 키운다. 11월 이 주를 마치고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분양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송파구에선 현재 아남아파트를 비롯해 모두 5개 단지, 총 2578가구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남아파트와 같은 해에 준공된 송파동 성지아파트(298가 구)는 10일 권리변동계획을 확정하는 총 회를 열었다. 송파구 리모델링 사업지 중 규모가 가장 큰 문정시영아파트(총 1316 가구)는 현재 1차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 다. 준공 30년을 이미 넘긴 이 단지는 리모 델링을 마치면 1512가구로 200가구 가까 이 가구 수가 늘어난다. 리모델링 업계 관 계자는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들이 리모델 링으로 우회하면서 리모델링 시장에 훈풍 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삼 전현대아파트는 7월 수직증축(기존 아파 트 위로 2~3개 층을 더 올려 짓는 것) 리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1차 안 전진단을 마무리했다. 준공 24년차인 문 정건영아파트는 이달 조합을 설립하며 리 모델링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우성 9차와 서초구 잠 원동 잠원훼미리아파트도 리모델링 시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포우성 9차는 준공 28년인 지난해 착공해 현재 공사가 한창 진 행 중이다. 입주는 내년 하반기 가능할 전망 이다. 1차 안전진단에서 B등급으로 수직증 축 가능 판정을 받은 잠원훼미리아파트는 현재 건축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리모델링 기대감에 아파트값도 강세다. 개포우성 9차 전용면적 84㎡형은 2월 19 억9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현재 호가는 최고 24억 원에 달한다. 서울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름세이긴 하지만 리모델링 이후주거환경 개선 기대감과 강남권이라는 프리미엄이 함께 작용하면서 주변 단지들보다 상승폭이 크다는 게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강동구에선 지역 1호 리모델링 추진 단지 인 둔촌동 둔촌현대1차는 올해 초 사업승인 을 받았다. 1984년에 지어진 이 단지는 가구 수 증기형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498가 구에서 572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강남권 아파트 단지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건 재건축 사업에 비해 추진 과정이 비교적 덜 까다로워서다. 리모델링은 허용 연한이 15년으로 30년인 재건축에 비해 짧다. 안전진단 기준도 재건축은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B등급인 경우 수직증축, C등급이면 수평증축을 할 수 있다.

특히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 미만이면 조합이 임의로 분양할 수 있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규제도 피할 수 있다. 30가 구 이상 분양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청약 형식으로 공급해야 한다.

리모델링 사업 기대감은 올해 하반기에 정부의 내력벽 철거 허용과 관련한 안전성 검토가 마무리되면 더 커질 전망이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한화건설 '포레나 양평' 내주 분양…LTV 70% 가능

21일 특별공급 이어 22일 1순위

한화건설이 경기도 양평에 들어서는 '포 레나 양평〈조감도〉' 아파트를 분양한다.

포레나 양평은 양평군 양평읍 일대에 지하2층~지상 24층 7개동 438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59㎡ 171가구 △74㎡ 178가구 △84㎡ 89가구다.

양평군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비규제지역이다. 따라서 아파트 재당점 제한 이 없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 지 적용된다. 분양권 전매도 자유롭다.

청약 일정은 오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23일 2순위로 진행한다. 10월 8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계약기



간은 19~21일까지 3일간이다. 계약자는 발코니 확장선택시 현관 중문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 중이며, 향후 단계에 따라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예 정이다. 견본주택은 양평군 양평읍 일대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3년 1월 예정이다.

김동효기자 sorahosi@

철산주공 재건축에 요동치는 광명…전셋값 급등

대규모 재건축 속도내자 전세 품귀 철산동 아파트 한달새 최대 3억 '쑥' 내년이후 '전세절벽' 계속 이어질 듯

"올 봄보다 전셋값이 2억 원 이상 올랐는데 늦어도 3일이면 전세계약 완료됩니다.이마저도 없어서 못 보여드려요." (경기 광명시 철산동 L공인중개사무소 괸계자)

경기 광명시 아파트 주택시장이 재건축 발 전세난을 겪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에 다 대규모 재건축 사업까지 연달아 진행되 면서 전세 품귀 속 가격이 치솟고 있다.

14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 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광명시 아파트 전세 물건은 총 194건으로 한 달 전 448건보다 57%가량 줄었다.

전세 물건이 줄어들자 전셋값은 가파르 게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광명시 중위 전셋값(주택을 전세 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위치하는 중 앙값)은 3억3400만 원으로 지난 7월 3억2500만 원보다 5.2%(900만 원) 올랐다. 올해 들어 광명시 중위 전셋값은 지난 1월(3억1450만 원) 대비 6.2% 상승했다. 지

경기 광명시 중위 전셋값 추이



경기 광명시 철산동 주요 단지 전셋값

단지명	전세 보증금 호가	최근 실거래가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 (전용 59㎡형)	6억6000만~ 7억 원	4억7000만 원 (6월)
광명 브라운스톤 2단지 (전용 84㎡형)	6억5000만 원	3억7000만~ 4억5000만 원 (7월)

※출처: 네이버부동산, 국토부 실거래가

난 7월 국회 문턱을 넘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상승세가 더 가팔라진 셈이다.

문제는 광명시 내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진행돼 전세난이 내년 이후까지 장기간 계 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 철산주공12·13단지는 정밀안전진단 추진 등 재건축 절치를 서두르고 있다. 12단 지는 지난 주말 재건축 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13단지는 정밀안전진단 시행 기금 모집 마무리 단계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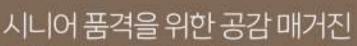
이들 두 아파트는 각각 1800가구(12단지)와 2460가구(13단지)의 대단지다. 앞서 철산주공8·9단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다음 달 말부터 본격 이주에 들어간다. 이 아파트 역시 총 2064가구의 대단지다.

현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철

산주공단지 인근 '광명푸르지오' 아파트의 전세 물건은 한 건도 없었다. 1264가구 규 모의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 아파트의 전세 물건도 단 2건, 445가구 규모의 '광명브라 운스톤2단지' 역시 한 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전세 시세도 최근 실거래가보다 2억 원 이상 비쌌다.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 전용 59㎡형 전세보증금 호가는 6억 6000~7억 원 선이다. 지난 6월 전세 실거 래가(4억7000만 원)와 비교하면 약 2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광명브라운스톤2단지' 전용 84㎡형 역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지난달 6억7500만 원에 계약을 마쳤다. 이 단지는 지난 7월까지 3억 7000만~4억5000만 원에 전세 거래됐다.한 달 만에 최대 3억 원가량 올랐다.

정용욱 기자 dragon@



월간 브라보 마이라이프

9월호 발매

COVER STORY 브라보! 음악에 치어스!!

PARTI. 음악의 가치 음악은 늙지 않는다

PART2. 중장년 음악문화 서비이 하드웨어는 변했어도 소프트한 감성은 그대로

PART3. 추억 속 음악 찾기 숫자로 일아보는 추억의 열범들

PARTA. 음악에 반하다 신의 물조림, 선율로 듣는다

PARTS. 노래가 살을 부를 때 인생 오선지 워. 등표처럼 찍힌 그때 그 노래

PARTS. 음악 감상실을 가다 LP 한 정 들고 때니는 감성여행

WELL A RELL KHEL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최고의 가지, 바로 예술' 배우 이렇게 아르다멘티로서 제작을 안세를 없다



모터사이클은 영상과 같아~ 새로운 세계로 더라다준다 윤수성 모르워드 대표가 올려한 모터사이물의 새로운 경지



양망과 한방이 손잡고 걷는 '매화'에 이르는 길' 작품을 통해 평화를 꿈꾸는 유명호 착가



박원식이 만난 귀촌 사람들 나만의 낙원을 꿈꾸었다, 그러나…

인녕, 서골아, 드디어 내가 너에게 왔노라! 그에겐 그렇게 흐뭇한



인사일을 옮을 겨름이 없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사업을 하다 귀농한 감열홍(KI) 씨, 그의 귀는 일은 귀였나? 그는 "농지며 칩이며 거저 쓸 수 있으니 몸만 오라"는 지만의 달짝지근한 권유를 받고 설레이 달려 내려간 참이었다. 그러나 막상 가서 보니 상황이 영 달랐던다.

김혜영의 느린 여행 버려진 시골집의 재탄생 '규암리자온길'

백제고도 부여에는 백제의

찬란한 문화 유석들이 많이 남아 있다. 한편으로는 백제 유적지 말고는 이렇다 한 관광 콘텐츠가 없어 이쉬웠다. 2년 전 규임면 규임리 자온로에 '자온길 프로젝트라는 마을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돌았다. 그 첫 단추가 독립처점 '백방세간'이었다. 호기심을 얻고 찾아간 시골 책임은 꽤 신선했다. 지금 그 마음이 어떻게 번했음지 궁금해 다시 가봤다.

얼마가 얼마에게 면역력과 만성질환 (방울 위한 육류와 버섯, 녹황색 채소 레시피

투자 고수와 놀자

강대군 사서농업은행 11100자문센터 산업연구원 늦추면 더 받는 '돌뜰한' 국민연금

생생 부동산 현장 비규제지역에 가려진 '알짜' 호재들

6·17 부동산 대책이 호재로 작용한 자격이 있다. 부동산 규제를 피해 '어직 안전하다, '투자함



만하다' 라는 인식이 자리 집으면서 수요가 몰린 '김포한강산도시'다. 그렇다면 다른 호재는 없는 걸까. '김포한강산도시'의 정재된 미래가지를 살펴보기 위해 정점 찾아가봤다.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8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檢'3.6억 횡령'혐의 윤미향 기소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55·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부장검사)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 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박물관 등록 요건 인 학예사가 없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허 위로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 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로부터 약 3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다른정대협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 부터 2020년까지 여성 가족부의 '위안부 피 해자 치료사업', '위안 부피해자 보호시설운

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500만 원가량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윤 의원과 함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관할 관청의 등록 없이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

로 1억7000만 원의 기부 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도 포함됐다.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 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 받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쓴 돈은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 원에 매입한 것은 업무 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쉼터 를 시민단체 등에 50회 대여해 총 900여 만 원의 수입을 올려 미신고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적용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받았다"며 "모금된 금품은 모두 공적으로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김종용 기자 deep@



"이번 추석에는 안와도 된당께~"

정부가 추석부터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기간을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로 보고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했다. 14일 전남 보성군 보성읍 거리에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부품 몰래 바꾼 BMW, 과징금 적법"

미니쿠퍼에 배출가스 인증과 다른 제품 사용… 법원 "검수 의무 안 지켜"

국내에서 판매된 미니 쿠퍼 차량의 배출 가스 관련 부품을 무단 변경한 사실이 드 러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BMW코리 아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BMW 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과징금 5억 3000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MW코리아는 2015년 미니 쿠퍼 차량을 판매하면서 최초 인증과 다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사용했다. 이 같은 사실은 배출가스 부품 의무 결함시정(리콜) 제도를통해 적발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미니

쿠퍼 차량 총 1256대의 '정화조절밸브'를 기존에 인증받은 부품보다 내구성이 약한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2018년 BMW코리아에 과징금 5억3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BMW코리아는 "미니 쿠퍼 차량의 정화 조절밸브 제조업체가 설계 사양을 변경해 공급한 것으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불 량 부품이 장착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결함의 시정 대상에 해당할 뿐 변경 인증 이나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행법상 변경 인증 시험 대상 항목으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달라 지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정화조절밸브 가 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화조절밸브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 연료증발가스 방지 장치 중하나로 보인다"면서 "BMW코리아가 변경 부품이 적용된 차량을 수입·판매한 것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수입해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동차 수입자는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받아 그 내용대로 수입해야 하고 인증내용과 동일하게 제작됐는지 검수 등의의무가 있다"며 "부품의 변경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 에 게재됐습니다

'발음 부정확' 이유로 여권 영문 이름 못 바꾼다

재판부 "여권 신뢰도 저하 우려"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여권의 영 문 이름 표기를 바꿀 수 없다는 법원 판단 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 영문 이름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씨는 1995년 자신의 이름에 들어가는 '원'을 영문 'WEON'으로 기재해 여권을 발급받았다. 김 씨는 2018년 11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WEON'을 ''WON'으로 변경해 외교부에 여권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단순 발음 불일치를 변경 사유로 규정하면 대상이 과도하게 많 아질 우려가 있다"며 기존과 동일하게 표기한 여권을 발급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경 사유를 폭넓게 허용하면 우리 국민에 대한 출입국 심사와 체류 상 황 관리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고 외교부 손을 들어줬다. 이어 "이 같은 현상이 누적 되면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 돼 우리 국민의 해외 출입에 상당한 제한 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종용 기자 deep@

軍, 추미애 아들 논란 '카투사 입단속'

"개별 대응 말라" 함구령

추미에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27) 씨의 카투사(KATUSA,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시절 특혜 휴가 논란이 커지자 군이 내부 입단속에 나섰다.

14일 복수의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한미군한국군지원단은최근카투사 와 관련해 "개별적인 대응을 삼가라" 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더 불어 언론 문의가 있을 경우 공식 소 통 채널로 정훈장교나 인사장교를 통 하도록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카투사 소속 장병 A 씨는 "상부에 서 개별적인 언론 대응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 발 생할 때마다 함구령을 내려왔다.

과거 28사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군 관련 사건 때마다 예하부 대에 공문을 보내 취재를 막아왔다.

군 복무 시절 인사 관련 행정을 했다는 B 씨는 "군에서 논란이 생기면 부대별로 언론 대응을 자제하라는 지 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군이 내부 통제에 나서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다. 장교 출신인 C 씨는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간부를 통해 대응하자는 취지로 개별 대응을 막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의 지나친 통제는 언론의 감시를 막아 사건의 본질이 축소 · 은 폐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 려도 제기됐다.

송경재경희대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군 특성상 통신 보안이나 기밀 유지를 위한 내부 통제가 필요할 때가 있다"면서도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인위적으로 (정보를 통제하면) 문제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서 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 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에서 카투 사로 복무하면서 2차례 병가 후 개인 휴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 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자대 배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 한 청탁 의혹 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 다. 박준상기자 jooooon@

'권역 지정 대학별 고사' 무산되나

입학처장協 "공정성에 문제" 교육부 방침에 보이콧

전국 대학이 교육 당국의 대학별고사 시 행 방침에 대해 일부 수정을 요구하는 '건 의문'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보내기로 하는 등 사실상 '보이콧'에 나섰 다.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 생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이하 협 의회)에 따르면 최근 전국 198개 대학을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여부', '면 접방식' 등 9개 항목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비 대학별 고사 방식에 대한 비공개 설문조사를 진행 했으며, 결과를 반영한 건의문을 교육 당 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별전형 방역관리 안내'에 기초해 대학 별로 여건에 따라 자체 방역 관리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확진자는 대학별고사 응시가 제한되고 자가격리자 는 교육부가 권역별로 마련한 시험장에서 전형을 치르도록 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평가 공정성 확보와 인력 파견 등의 문제로 권역별 시험 방안에

난색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자가격리 수 험생을 위한 교육부의 권역별 대학별고사 방침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 기도 했다.

협의회는 이번 설문을 통해 △자가격리자 시험자격 부여 여부 △면접 방식(대면 또는 비대면) △실기 시험장소(개방형 운동장 또는 체육관) △시행방식의 중요도순서(1.5m 거리두기 또는 시간별 수험생분산 또는 유증상자의 동선분리) △각학교의 방역가이드(방역복 착용 또는 비말차단고글 사용) △대학 내학부모 출입통제 방식(교내 출입 미허용 또는 허용) 등을 조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 한 회의 결과를 종합해 대교협에 조만간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 결과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학들이 그동안 자가격리자의 권역별 시험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만큼 자가격리자 시험 자격 부여에 부정적 응답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손현경 기자 son89@

내일 수능 모의평가… 재수생 응시 줄었다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졸업생(재수생)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월 모평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기관이 문제를 내는 마지막 시험인 만큼 '미니 수능'이라 불린다.

교육부와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 정평가원(평가원)은 16일 전국 2099개 고교와 428개 지정학원에서 수능 9월 모 평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9월 모평에는 지난해 9월보다 6만1877명 감소한 48만7347명이 응시한다. 재학생은 40만9287명이 응시해 지난해보다 4만9930명 감소했다. 재수생 등 졸업생은 7만8060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6월모평보다 1만1303명 늘었지만지난해 9월보다는 1만1947명 감소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 나19) 여파로 재수생 응시가 늘어날 것이 라는 학원가의 예상과 다른 결과다. 다만 재수생 비율은 수능 때 크게 늘어나기 때 문에 예단하기는 어렵다. 지난해에도 9월 모평을 치른 재수생은 16.4%였지만 수능 에선 28.3%로 늘었다.

9월 모평은 수능 준비 시험으로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이 같다. 채점 된 성적표는 올해 수능 준비를 위해 애초보 다 이틀 앞당긴 다음 달 14일에 제공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300 인 이상 대형학원이 문을 닫았으나 모평 당일엔 재수생이나 이른바 'n수생' 들도학 원에서 대부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손현경 기자 son89@



SUV 인기는 차종 다양화를 불러왔다. 소형 SUV가 인기를 누리면서 차종은 보다 세분화했다. 나아가 현대차는 팰리세이드 윗급으로 자리매김할 진정한 의미의 대형 SUV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현대차 북미 SUV 라인업 모습.

사진제공 현대차

'D·D·D'→'S·S·S'···10년 새 확 바뀐 車 트렌드

⟨Deutsch·Diesel·Downsizing⟩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는 다양한 주변 환 경에 따라 달라진다.

구입 또는 보유 단계의 세금제도를 기본 으로 국제유가, 자동차 관련 규제, 라이프 스타일 변화 등에 따라 신차 시장의 판도 가 결정된다.

이처럼 다양한 요건의 변화에 따라 잘 팔리는 차가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비인기 차종이 주류 차종으로 급부상하기도 한다.

◇2010년대 들어 독일 디젤차 큰 인기 누려 = 2010년대 들어 국내 자동차 시장의 주요 트렌드는 D·D·D였다. 독일차 (Deutschland)와 디젤(Diesel) 그리고 배기량을 낮춘 다운사이징(Downsizing) 이 커다란 흐름이었다.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고유가 시대가 본격화되자 자동차 시장에서는 연비 좋고 잘 달리는 디젤차가 큰 인기를 누렸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환경정책에 힘입어 친환경 디젤 엔진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디젤차 인기를 부추겼다. 요즘 전 기차가 누리는 다양한 혜택을 그 당시 디 젤차가 누렸다.



2010년 고유가로 디젤 차 인기 배기량 줄이는 다운사이징 활발 배기가스 기준 삼은 유럽차 러시

2020년 고연비 가솔린 車 늘어 소형 SUV 10개 차종으로 확대 첨단 주행보조시스템 기본 장착

지금은 미세먼지 주범으로 위상이 추락 했지만 당시는 디젤차 앞에 '친환경'이라 는 수식어를 마음껏 덧댈 수 있던 시절이 었다. 당시 디젤차 인기는 승용차까지 영

토를 넓혔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속속 세 단 제품군에 친환경 디젤 엔진을 얹어가며 디젤 엔진의 당위성을 키웠다.

이 무렵 독일 BMW를 시작으로 메르세 데스-벤츠와 아우디, 폭스바겐 등이 속속 디젤 라인업을 확대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디젤차 배기가스 기준(유로4 또는 유로6 등)을 유럽에서 들여오다 보니 유럽 디젤차의 한국진출도 어렵지 않았다.

이 무렵 엔진 기술도 발달하면서 이른바 다운사이징이 본격화됐다. 한때 준중형차 (1500~1600cc)와 중형차(2000cc급) 대 형차(3000cc)에 공식처럼 여겨졌던 배기 량은 점차 틀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중형세단 쏘나타에 1600cc가 등장하고 준대형차 그랜저가 아랫급 쏘나타의 엔진 을 얹기 시작했다.

심지어 독일 고급차의 대명사인 메르세 데스-벤츠S-클래스가 4기통 소형 엔진을 얹기도 했다. 배기량을 낮춰도 힘을 충분 히 뽑아낼 수 있는 이른바 '다운사이징' 기 술이 발달한 덕이다.

◇스마트 기능 가득 담은 소형 SUV가 주류 = D·D·D로 점철됐던 우리 자동차 시 장의 키워드는 한 세대, 예컨대 5~7년 주 기로 신차로 교체되는 하나의 라이프 사이 클이 채 지나기 전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다.

년 BMW 디젤모델의 잇따른 화재사건 이 후 소비자들은 미련 없이 디젤을 등지기 시작했다. 디젤 못잖게 연비가 좋은 가솔 린과 하이브리드가 속속 등장하면서, 디젤 오너에게 대안을 던져줬다.

결국, 국내 자동차 시장의 흐름은 D·D· D에서 S·S·S, 예컨대 △SUV와 △소형 (Small) △스마트(Smart)로 빠르게 이 동하기 시작했다.

주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레저와 여기활 동을 중요하게 여기하는 흐름이 확산하면서 니치 마켓(틈새 시장)에 머물러 있던 SUV 가 차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2018년 말을 기점으로 국내 SUV 판매가 세단을 앞 질렀고, 판매 차종도 더 많아졌다.

현대차(제네시스 제외)의 플래그십은 더는 그랜저가 아닌, 대형 SUV 팰리세이 드라는 주장마저 나온다. 배기량(가솔린 기준)과 차 가격, 편의 장비와 다양한 옵 션 등을 고려할 때 그랜저보다 팰리세이드 가 윗급이라는 의미다.

이처럼 SUV가 확산하면서 시장은 대형 과 소형 SUV로 양분되기 시작했다. 특히 국산 대형 SUV는 3가지에 머물러 있지만, 판매 중인 소형 SUV는 10가지나 된다.

◇소형 SUV도 윗급과 아랫급으로 양분 = 자동차 시장은 배기량과 가격에 따라 등 급을 나눈다. 경차가 A세그먼트라면 소형 2015년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와 2018 SUV는 B세그먼트다. 소형 SUV 인기가

치솟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장이 보다 세분 되는 중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소형 SUV는 모두 4종이었 다. 이들의 연간 판매도 8만2308대 수준 이었다.

불과 5년 만인 올해, 소형 SUV는 모두 10가지로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연간 판 매량도 17만8710대에 달하며 2배 이상 증 가했다. B세그먼트로 분류됐던 소형 SUV도 세분돼 B-와 B+ 등급으로 나뉘기 시작했다. 같은 소형 SUV라도 윗급과 아 랫급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현대자는 코나와 베뉴, 기아차는 셀토스와 니로, 스토닉으로 이 등급을 다양화했다.

나아가 쉐보레 역시 소형 SUV를 △트 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로 양분했고, 르 노삼성도 △XM3와 △QM3를 앞세워 소 형 SUV 시장의 투-트랙 전략을 이어가는

시장이 치열해지다 보니 다양한 첨단 전 자장비를 가득 담고 등장한다. 친환경 순 수전기차는 물론 첨단 주행보조 시스템 등 을 갖추며 레벨 2.5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 마저 담고 있다.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가 SUV와 소형, 스마트에 점철되면서 당분 간 이런 소형 SUV 시장의 인기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junior@

소형 SUV 차종 다양화… '티볼리 에어' 단종 1년 만에 부활

넉넉해진 3열 공간 장점

국내에서 단종된 쌍용차 티볼리의 롱 보디 버전 '티볼리 에어'가 올 연말 부활 한다. 소형 SUV 시장이 B+와 B- 등급 으로 나뉘자 차종 다양화로 대응하기 위 해서다.

2016년, 티볼리 등장 1년여 만에 출시 된 '티볼리 에어'는 소형 SUV 시장을 더 욱 확대했다. 데뷔 첫해 2만 대 가까이 팔리면서 티볼리의 선전에 힘을 보탰다. 중형 SUV에 버금가는 넉넉한 3열 공간 도 장점이었다.

면서 판매 간섭을 우려해 국내에서 단종 차가 차종 다양화에 나서면서 시장은 역 했다. 그러나 최근 2~3년 사이 국내 B세 그먼트 SUV 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형 SUV 시장은 2015년 티볼리 등장으 로 8만 대를 훌쩍 넘겼고, 지난해에는 18만 대에 육박했다.

선점했다. 2017년 기준, 기아차 니로 확대하기 위해 티볼리 윗급의 티볼리 에 (2만3647대)와 현대차 코나(2만3522 대)가 출사표를 던졌으나 티볼리 연간 판 매량(3만8071대)에는 크게 못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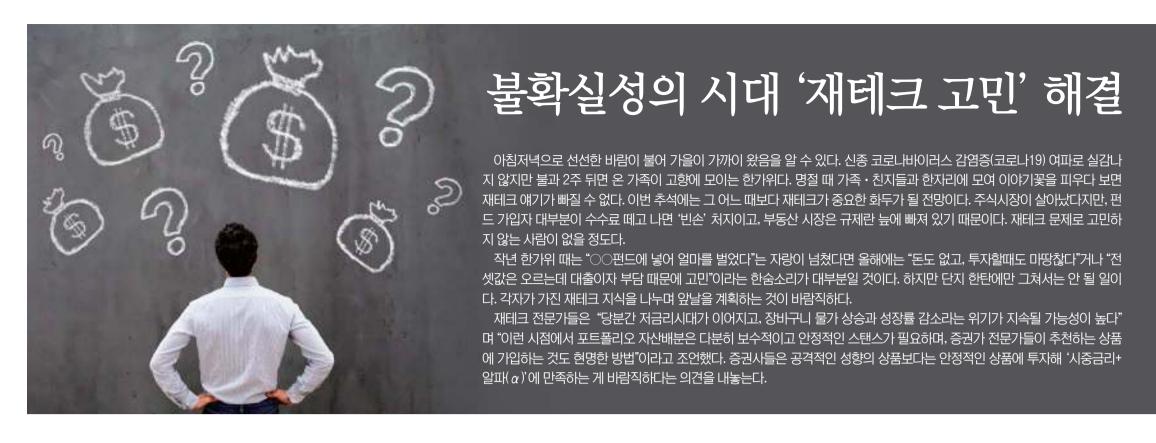
결국, 황금 시장으로 떠오른 소형 그러나 2019년 윗급 코란도가 등장하 SUV 시장을 거머쥐기 위해 현대·기아

전됐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지난해 베뉴와 셀토스를 추가하면서 경쟁에는 연간 2만8000대 수준에 머물렀던 소 불이 붙은 것. 쉐보레와 르노삼성 역시 소형 SUV를 2종류씩 내놓으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본격적인소형SUV 시장을 개척한 쌍 이 시장에서 티볼리는 일찌감치 시장을 용차 역시 다양화된 시장에서 점유율을 어를 재판매키로 했다. 내수에서만 단종 했을 뿐, 꾸준히 수출시장에 내놨던 모델 인 만큼, 이 모델을 다시 내수에 선보이 는 것 역시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반도체·2차전지 등 IT기업에 집중 투자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코어테크펀드

최근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은 굴뚝 산업에서 첨단 정보기술(IT)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등 신 성장 산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맞춰 핵심 기술과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정보기술(IT)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코어테크펀드'를 판 매하고 있다.

미래에셋코어테크펀드는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증시와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IT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이나 핵심기술을 국산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 산업 내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IT 기업을 비롯해 해당 기업에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거나 소프트웨어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포함된다.

편입 종목은 제품 경쟁력, 시장 점유율, 기술에 대한 진입장벽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델 포 트폴리오를 구축한다.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이 모두



포함하며 주로 반도체, 2차전지, 5G 통신 장비 등 IT 관련 종목으로 구성한다. 단기적 이슈보다는 장기적 인 시각에서 접근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재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정수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서치본부 팀장은 "글로 벌 주식시장은 전체 시장지수보다는 섹터, 섹터 내에 서도 종목 선택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미래에셋코어테크펀드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IT 관련 기업에 집중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펀드가입은 매 영업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미래에셋대우 등 판매사 영업점 혹은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글로벌 ETF에 분산 투자… 매월 리밸런싱

NH투자증권

NH-Amundi QV글로벌포트폴리오 펀드

NH투자증권은 ETF(상장지수펀드)에 주로 투자해 시장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 'NH-Amundi QV글로벌포트폴리오'를 판매하고 있다.

'NH-Amundi QV글로벌포트폴리오' 펀드는 국 내, 미국 및 유럽 상장 ETF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다. NH투자증권에서 자산배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NH-Amundi 자산운용에서 받은 포트폴리오를 기반 으로 환헷지를 통해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 에 맞춰 월간 단위로 리밸런싱 하는 EMP(ETF Managed Portfolio) 펀드다.

EMP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포트폴리오의 선정과 관리라고 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QV포트폴리 오'로 자산배분형 펀드 및 랩 등의 차별화된 포트폴리 오를 운용하면서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QV포트폴리오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위험배 분(Risk Budgeting)에 근거한 자산배분모델을 중심 으로 글로벌주식 스코어링(Scoring)시스템, 세부카 테고리별 펀드 선정 로직 등의 다양한 정량적 데이터 와 리서치센터의 시황 판단을 결합해 최적의 투자안 을 도출한다.

QV포트폴리오의 운용과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을 두고 매일 모니터링, 매주 전략회의를 통해 글로벌 시황과 상품 성과를 긴밀하게 점검하며, 매월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 상품 전문가 등 각 부문의 투자 전문 가들로 구성된 자산배분전략위원회를 열어 QV포트폴 리오 운용 결과를 점검하고 리밸런싱 여부를 결정해 운용하고 있다. 'NH-Amundi QV글로벌포트폴리 오' 펀드는 NH투자증권의 QV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매월 리밸런싱을 진행하고 10가지 내외의 글로벌 ETF에 분산 투자해 시장상황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 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한다.

이 펀드는 NH투자증권 전국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 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NH투자증권 고객센터(1544-0000)에 문의하면 된다.

저위험 안정추구 ELB… 최저 年 4% 수익

하나금융투자

하나믿을秀랩

하나금융투자는 초저금리에 변동성 커진 주식시장 속에서 저위험 안정추구형 랩 서비스인 '하나 믿을秀 랩'을 추천했다.

'하나 믿을秀랩'은 하나금융투자에서 발행하는 스 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이하 ELB)에 주로 투자하며, 현금성 자산도 편입한다.

지난해 해외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에 이어 올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파생결합증권(DLS),주가연계증권(ELS)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가 늘면서 보다 안전한 ELB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ELB는 자산 대부분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국공채로 채우고 일부를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위험 자산에 투자한 돈을 모두 잃어도 안전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가 이를 상쇄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저금리 시대에 원금은 지키면서 높은 수익을 제공하고 있어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한 상품이다.

ELB의 만기는 6개월로 만기상환 시점에 최초 기준 가격을 웃돌면 연 4.02%(수수료 차감 전)를 지급하고,



최초 기준가격을 밑돌더라도 연 4.0%(수수료 차감 전) 의 이자를 준다. 신규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기온창 하나금융투자 IPS본부장은 "하나 믿을秀 랩'은 최저 연 4.0%의 수익(수수료 차감 전)을 지급 하면서 원금보장형 저위험 구조로 만들어져 단기자금 운용처를 찾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라며 "하 나금융투자는 앞으로도 정직한 투자의 원칙을 지켜가 면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투명한 솔루션 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 믿을秀랩'은 하나금융투자 모든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랩수수료는 연 0.5%로 해지 때 출금 된다. 상품은 최소 5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추가 입금은 불가능하다.

생애주기 맞춰 자산 배분, 변동성 위험 최소화

신한금융투자

신한BNPP 마음편한 TDF

신한BNPP 마음편한 TDF는 생애주기에 맞춰 자산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재조정해 가입자의 은퇴 시점까지 자산을 배분하는 상품이다.

'타깃 데이트 펀드' (TDF)는 투자자가 설정한 은퇴 시점에 맞춰 투자자산과 안전자산의 포트폴리오 비중 을 전문가가 알아서 조절해 운용하는 자산배분형 펀 드다. 투자자의 출생연도에 예상 은퇴 나이를 더한 값 이 타깃 데이트가 된다. 예를 들어 1990년에 태어난 투자자가 예상 은퇴 연령을 60세로 설정을 하면 TDF 2050 (1990+60)을 선택 투자하면 된다.

'신한BNPP 마음편한 TDF'는 자산배분 프로그램 인 글라이드패스(Glide Path)를 이용해 생애주기에 맞춰 자산을 배분한다. 글라이드패스란 비행기가 착 륙 때 높은 고도에서 낮은 고도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의미한다.

TDF에서 은퇴시점과 다양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적 극적 투자에서 보수적 투자로 자산 비중을 조정한다.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퇴 시기가 많이 남은 상태에서 장 기투자를 통해 주식의 높은 기대 수익을 누적한다. 이후 은퇴 20년에서 15년 전부터 적극적인 위험 조정을 통해 위험을 점차 감소시키고 은퇴 시점에서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위험을 최소화한 은퇴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신한BNPP 마음편한 TDF 시리즈'는 국내에서 해 외에 이르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며 전 세계 우 수한 다양한 상품(글로벌 채권 및 주식)에 선별 투자 하는 상품이다. 또한 해외투자에 대해 유연한 환율 전 략을 실시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의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한BNPP 마음편한 TDF 시리즈'의 총 보수는 가입자가 선택한 은퇴 시점에 따라 다르다. 최소가입 금액의 제한은 없으며 펀드 투자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상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 (1588-03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보자도 적립식으로 쉽게 '金테크' 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금현물랩

"자유적립식으로 쉽게 금에 투자하세요" '금테크 (금+재테크)'에 관심을 두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금 투자법은 '실물 투자(KRX 금현물, 골드바)'와 '골 드계좌(금펀드·골드뱅킹)' 등으로 나뉜다. 투자 방식에 따라 세금과 수수료, 환율 적용이 천차만별이다. 어떤 방식으로 어느정도 비중을 투자해야 할지 막막한 신규 투자자라면 증권사가 알아서 자산을 운용해주는 '랩어카운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금값 상승 랠리에 따른 시장 추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금(金) 현물에 투자하는 '한국투자금현물랩(적립식)'을 출시했다. KRX금시 장에 상장된 금 현물에 투자하는 랩 상품이다. 투자자 가 직접 KRX 시장에서 금 현물을 매입하는 수고로움 을 덜면서 쉽게 적립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KRX금시장 현물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 효과 다. 금ETF나 골드뱅크와 달리 매도 때 매매차익에 대 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는 점이다. 비과세되는 양도 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실물인 골드바를 살 때도 부가세 10%가 붙지만, KRX 금시장은 금 실물을 찾을 때만 부가세를 내면 된다.

한국투자금현물랩은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마다 자 동으로 낼 수 있다. 본인의 자금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적립식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및 향후 미중 갈등이 다시 커지고, 미국 대선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 투자로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는 투자자분 들께 추천하다"라고 말했다.

IT·헬스케어 등… 中 신성장 중소형株 투자

삼성증권

삼성중국본토중소형FOCUS펀드

삼성증권은 저금리 저성장 시대 투자처로 '삼성중 국본토중소형FOCUS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삼성 중국 본토 중소형FOCUS펀드'는 중국 정부 의 정책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우량 중소형주에 투자 하는 펀드다.

CSI500지수에 편입된 유망 중소형주가 주요 투자 대상이다. CSI500은 상하이, 선전시장의 약 3600개 종목 중 최상위 300개를 제외한 차상위 500개 종목으 로 구성된 지수다. CSI500에 편입되는 500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1200조 원에 달하는데 이는 코스피 시가 총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국 중소형주에 주목하는 이유는 투자와 수출 주 도의 양적 성장에서 내수 부양 및 첨단기술 자립화를 통한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중국 정부 의 핵심 경제정책의 수혜 업종들이 주로 중소형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삼는 산업은 IT, 필수소비재, 임의소비재 및 헬스케어 업종이다. 이 핵



심산업은 중국 중소형 시장과 ChiNext 시장의 56~6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대형주 시장 내 비중은 30% 미만이다.

'삼성 중국 본토 중소형FOCUS펀드'는 펀드의 투 자전략에 바탕을 둬 IT(22%), 산업재(18%), 소재 (16%), 헬스케어(12%) 등의 업종을 주로 편입하고 있다.

펀드의 최근 수익률도 우수하다. 운용은 중국 현지 의 조언을 받아 삼성자산운용 홍콩현지법인에서 맡고 있다.

리서치센터 포트폴리오 기반, ETF 운용

KB증권

KB 리서치 심포니 EMP랩

KB증권은 업계 최초로 '리서치센터 자체 ETF 포 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자산배분 EMP (ETF Managed Portfolio) 랩인 'KB 리서치 심포 니 EMP랩(글로벌자산배분)'을 서비스하고 있다.

EMP는 ETF(상장지수펀드)를 활용해 구성한 포 트폴리오를 뜻한다. 자산배분 EMP 기반 상품들은 개 별 주식의 위험을 분산시킨 ETF 중에서도 유망 ETF 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위험을 한 번 더 분산시키므 로 낮은 비용으로 글로벌 자산배분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KB 리서치 심포니 EMP랩(글로벌자산배분)'은 자산배분리서치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KB증권 리서치센터의 'KB ETF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운 용돼 이 포트폴리오의 장점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상품의 주요 투자대상은 글로벌 고배당 및 인컴형 자산, 글로벌 주식, 채권ETF 등이다. 포트폴리오의 70%는 장기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 (Core) 자산 에 투자하고 나머지 30%는 초과 성과를 달성하기 위



해 위성(Satellite) 자산과 결합해 투자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글로벌 주가지수(인덱스) 수준의 수익률을 확보하면서도 일부는 다이나믹한 ETF 운용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α)을 추구한다.

'KB 리서치 심포니 EMP랩 (글로벌자산배분)'은 최소 1000만 원부터 투자 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1 년이지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수수료는 선취 1.0% (최초 또는 추가 입금 때), 후취 연 1.0%(분기단위) 이며 현지 세금 등 해외주식 여러 비용 등은 별도 부과된다.

전문가가 알아서 교체·환매 자산 분산투자

메리츠증권

메리츠 펀드 마스터 랩

메리츠증권이 국내, 해외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메리츠 펀드 마스터 랩(Wrap)'을 판매 중이다.

'메리츠 펀드 마스터 Wrap'은 펀드 투자에 관심이 있지만 어떤 펀드를, 언제 사야 하는지 고민하는 고객 들을 위해 전문가들이 직접 펀드를 고르고 운용하는 랩어카운트다.

이 랩 서비스는 메리츠증권의 리서치센터와 상품담 당 부서가 협업해 운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리서치센터는 글로벌 경기와 시장 전망에 따라 투자 유망한 자산과 국가 등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 산 배분 전략을 제시한다. 그리고 펀드 전문가들이 운 용성과와 철학이 우수한 펀드를 선정해 투자하는 방식 이다. 이후 시황을 지속해서 지켜본 후 자산 재조정을 통해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메리츠증권의 리서치센터는 이경수 센터장이 부임한 2016년 이후 국민연금 거래증권사 평가에 3년 연속 1등급으로 선정되는 등 '차세대 리서치 명가'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점이 국내외 우량 자산에 분산투



자를 하고자 하는 고객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최소 가입금액은 10만 원 이상이며 적립식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1년이나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해지 시 별도 수수료가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또한, 매 분기 운용보고서를 통해 현재 운용상태와 향후 운용 전략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가입과 문의는 메리츠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 터를 통해 가능하다. 가입 후 홈페이지, HTS, MTS 에서도 계좌 조회가 가능하다.

주요국 리츠 선별… 안정적 배당·차익 추구

대신증권

대신 글로벌 리츠 부동산 펀드

대신증권은 저금리 저성장 시대 투자처로 리츠가 주목받으면서 '대신 글로벌 리츠 부동산 펀드'를 판매 하고 있다.

이 상품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 거래소 상장 리츠에 투자해 안정적 배당수익과 자본차익을 추구하는 재간접펀드다. 금리 민감도에 따라 실물자 산의 안정성과 배당수익의 복리효과를 종합적으로 고 려해 자산보유 기간을 설정,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한다.

또 자산의 가격, 추세, 거래량 등을 분석한 트레이딩 알고리즘과 다양한 해외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리서 치 역량을 활용해 양질의 리츠를 발굴한다. 주요 투자 지역의 실물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지 시장 분석 능력으로 장기 성장이 가능한 우량 종목을 선정한다. 분산투자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선진국 부동산 관련 리 츠 상장지수펀드(ETF)도 일부 편입해 운용한다.

아울러 글로벌 리츠 투자 전문운용사인 러셀 인베스 트먼트의 자문을 받아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부동산 투자 경력 총 50년 이상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와 20년의 평균 경력연수를 보유한 150명 이상의 리서 치팀으로 구성된 러셀 인베스트먼트의 글로벌 부동산 투자운용팀이 글로벌 리츠 시장 내 리츠 자산의 가격 괴리 현상을 추적해 적절한 매수 타이밍 포착한다.

'대신 글로벌 부동산 리츠 펀드'는 환 노출형 및 환 헤지형 상품으로 구분돼 있으며, 신탁보수는 연 0.76 ~1.36%이다. 환매수수료는 없으며, 상품가입 및 상 담은 대신증권 영업점과 홈페이지, HTS, MTS에서 기능하다. 운용은 대신자산운용이 담당한다.

4차산업 선도기업 투자… 누적 수익률 85%

KTB자산운용

KTB글로벌4차산업1등주펀드

KT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KTB글로벌4차산업1 등주펀드'가 누적 수익률 85.06%를 기록하며 상승가 도를 달리고 있다.

전 구간에서 최상위권 성과(1개월 12.34%, 3개월 29.10%, 6개월 39.79%, 1년 57.78%, 3년 69.08%, 연초 이후 41.96%)를 내고 있다.

'KTB글로벌4차산업1등주펀드'는 지난 2017년 5월 출시된 업계 최초의 4차 산업혁명 테마 펀드로, 출시 6개월 만에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끌어모았다. 국내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을 받으며 4차 산업 관련 대표 펀드로 자리매김했다.

'KTB글로벌4차산업1등주펀드'는 인공지능, 자율 주행, 5G, 빅데이터, 클라우딩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내 핵심적인 기술이나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글로벌 선도기업에 투자한다.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하나금융투자 리서치 로부터 운용 전략 및 종목 선정 자문 서비스를 받고



있다.

KTB자산운용의 4차산업 관련 목표전환형 펀드들의 성과도 우수하다. 2017년 이후 출시된 총 9개의 4차산업 목표전환형 펀드의 목표전환 성공률은 100%다. 시장 전체 목표전환 평균 성공률이 약 30%에 불과한 상황에서 뛰어난 성과다.

특히 지난 2월에 출시한 'KTB글로벌4차산업퀄리 티1등주'목표전환형 펀드는 최근 국내 증시가 부진 한 상황에서도 약 6개월 만에 목표전환에 성공하며 실 력을 입증했다.





비오킬은 인체와 환경을 생각하는 선진국형 저독성 살충제입니다 특수 코팅된 원료로 햇빛, 높은 온도, 습도에 안정하며, 분사 후 4주 동안 지속적인 살충효과를 나타냅니다.

바퀴벌레, 파리, 모기, 빈대, 벼룩, 쥐이, 진드기, 좀벌레, 개미의 구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구축해야 내 권리 지키죠"

최승진 특허법인 RPM 대표 변리사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특허권 출원하지 않으면 독점권 잃어 中企일수록 상표 가치가 무기… 사업 초부터 꼼꼼히 챙겨야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먼저 특허권 으로 출원해 권리화하지 않으면 독점권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식재산 포트 폴리오를 꼼꼼하게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 으로 필요합니다."

최승진(35·사진) 특허법인 RPM 대표 변리사는 특허권이 보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이 사업에 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패막이자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높게 평 가받을 수 있는 지표라고도 설명했다.

최 변리사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에 소홀한 경우가 많음을 익히 알 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은 효 과와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 우선순위 에서 밀리곤 한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일 수록 기술력에 기초한 특허권과 브랜드를 반영한 상표 가치가 중요한 무기이기 때문 에 사업 초반부터 지식재산을 보호해야 한 다"고 말했다.

한국은 선발명주의가 아닌 선출원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즉, 먼저 발명을 했더라 도 특허권으로 출원해 권리화하지 않으면 개발한 기술을 권리화할 수 없고, 독점권 도 획득할 수 없다.

최 변리사에 따르면 핵심적인 기술을 개

발한 중소기업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은 채 로 제품에 적용하는 사이, 다른 기업에서 먼저 특허출원을 진행해 버려서 실제로 먼 저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독점권을 획득하 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오히려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후속 기업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로 성립하는 경 우도 많다.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진행 하기 전 특허권으로 보호를 해놓지 않는 경우 기업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음을 보

최 변리사는 상표권의 문제에서 잘 알려 진 문제로 돼지갈비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업체인 '명륜진사갈비'를 예로 들었다. 가 맹점이 500개가 넘지만 현재 상표권을 등 록받지 못한 명륜진사갈비는 명륜등심해 장국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 소송에 직면해 있다. 명륜진사갈비가 상표를 출원했지 만, 명륜등심해장국 선행 상표권에 의해 등록이 거절됐고 이 가운데 가맹점 수를 늘려 침해 소송에 얽히게 되었다.

그는 "소송 결과에 따라 명륜진사갈비 측은 사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며 "사업 운영에서 상표권 선점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사레"라고 밝혔다.

최 변리사는 "특허권으로 기술을 보호하



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가 다른 기 업이 기술을 모방하거나 특허권을 선점하 면 사업이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며 특허권 획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허권을 활용하는 범위는 점점 더 넓어 지는 추세다. 예컨대 올해 7월 기술보증기 금은 특허공제 국내 최초로 대출을 시행했 다. 적립 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제 에 가입한 뒤 1년이 지난 기업들에 한해 지 식재산비용 대출과 경영자금 대출을 제공 해 주는 것이다. 즉, 담보가 없어도 특허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최 변리사는 "이처럼 특허로 재무 문제 를 개선할 수도 있고, 벤처캐피털(VC) 등 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을 때 기업이 보

유한 특허권의 품질이나 개수도 참고사항 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중소 기업은 특허권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말했다.

최 변리사를 포함해 변리사 4명이 같이 올해 설립한 특허법인 RPM은 'Renovative Patent Management'의 약자다. 지 식재산을 출원·등록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 식재산을 혁신적으로 활용해 '돈이 되는 권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법인 창업에 앞서 최 변리사는 6년간 국 내 대기업의 지식재산을 전담하는 변리사 로 일하며 디스플레이, 자율주행, 의료기 기, 생활가전, 인공지능, 블록체인, 음성인 식 등 다양한 기술의 특허를 다뤘다. 한국 발명진흥회의 외부전문위원·심사위원으 로활동하고 있고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 업기술정보진흥원 등에서 기술 로드맵 및 품목발굴 등의 검토위원·자문위원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최 변리사는 "지식재산을 둘러싼 분쟁 및 예방에 관한 전천후 서비스를 제공해 개인부터 대기업까지 아우르는 독보적인 법인이 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고 밝 혔다. 이어 "당장 등록도 중요하지만, 차후 에 쓸모 있는 특허권이 될 것인지 아닌지 는 전문가의 전문성에 의해 판가름난다"라 며 "이를 위해 기술과 아이디어를 다방면 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전략 수립 및 법인의 전문인력을 더 많이 확보하고, 다양한 네 트워크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WTO 사무총장 선거 지지 호소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으로

유명희〈사진〉 산업통 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장이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출 지지 교섭을 위해 미국 을 찾는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 본부 장은 15일 워싱턴 D.C.로 출국해 18일까 지 머물면서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과 관련해 미 정부와 업계 및 전문가 등과 협 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미국 방문 에 대해 WTO 사무총장 선출 1라운드가 16일 종료되는 시점을 고려해 미국과 WTO 주요 이슈 및 한미 간 여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7일 시작한 1차 라운드 절차는 16 일 끝나며, 여기에서 후보 8명 중 3명이 떨 어진다. 1차 라운드 결과는 21일 주간에 발표된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교보핫트랙스 오교철 대표 취임

교보문고는계열사교 보핫트랙스에 오교철 신 임대표이사가취임했다 고 14일 밝혔다.

오 신임 대표이사는 1972년 교보생명으로

입사해 영업본부장, 인력본부장, 지원본부 장, 인재개발원장 등을 역임했다. 더불어 제일안전서비스 대표, 교보정보통신 대 표, 대산농촌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 교 보핫트랙스는 교보문고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로 문구, 음반, 기프트 등 감성적 라이프스타일 용품과 공간을 제공

한독학술상에 고려대 김남훈 교수

대한당뇨병학회가 주 관하고 한독이 후원하는 제16회 '한독학술상 (Young Investigator Award)' 수상자로 고 려대학교 안암병원 김남 훈 교수가 선정됐다.

하고 있다.



김소희 기자 ksh@

김 교수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당뇨병과 대사 학술지(Diabetes & Metabolism Journal) 우수논문상을 수 상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당뇨병 연구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유혜은 기자 euna@

18번 홀 기적 같은 '칩인 이글' …이미림 메이저 첫 승

LPGA 투어 ANA인스피레이션 4라운드 마지막 한 방으로 뒤집고 1차 연장서 버디로 통산 4승 올려

이미림(30)이 18번 홀(파5)에서 기적 같은 칩인 이글을 선보이며 미국여자프로 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ANA 인스피레이션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이미림은 1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 니아주 랜초 미라지의 미션 힐스 컨트리클 럽(파72·676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

막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4개,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적어냈 다. 최종합계 15언더파 273타를 기록한 이미림은 넬리 코르다(미국), 브룩 헨더 슨(캐나다)과 함께 공동 1위에 올라 연장 에 돌입했다. 18번 홀에서 열린 1차 연장 에서 이미림은 유일하게 버디를 잡아내며 우승 상금 46만5000달러(약 5억5000만 원)의 주인공이 됐다.

이미림의 이번 대회 우승에는 18번 홀의 기적이 연출됐다. 이미림은 4라운드 18번 홀 그린 뒤에서 시도한 칩인 이글로 연장에

합류한 데 이어 마침내 우승을 차지하며 생 애 최초로 메이저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6 번과 16번 홀 칩인 버디와 함께 하루 세 번 의 칩인을 기록한 이미림은 2017년 3월 KIA 클래식 이후 3년 6개월 만에 LPGA 투어 4승째를 올렸다. 이미림은 캐디와 함 께 '포피스 폰드'에 뛰어드는 우승 세리머 니를 펼치며 올해 '호수의 여인'이 됐다.

양희영(31)과 이미향(27)이 나란히 7 언더파 281타로 공동 15위에 올랐고, 박 인비(32)는 1언더파 287타로 공동 37위 를 차지했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이미림이 ANA 인스피레이션 우승을 확정한 후 캐디와 함께 '포피스 폰드'에 뛰어들어 환호하고 USA투데이스포츠연합뉴스

한 지원 의사를

밝히며,본인이

책을 통해 미술

을 더 깊게 이

해하는 것처럼

미술관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

들도 쉽게 미술

을 접하면 좋겠

와기쁘고놀랐

LG화학 노사, 사업장지역 수재민에 2억 규모 생필품·식료품 전달



LG화학은 노사가 주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수재민들에게 2억 원 상당의 생필 품과 식료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LG화학은 9일 충북도청에서 위로 물품 을 전달했고, 10일 전남 구례군청〈사진〉 과 전북 순창군청, 11일에는 충남 아산시 청에서 전달식을 열었다.

이 물품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례, 순창, 충주, 제천, 음성, 아산 등 수 재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에는 LG화학 임직원 들이 자발적으로 약 1억 원을 모았다. 임 직원 모금액만큼 회사가 추가로 보태는 '매칭 그랜트'를 통해 총 2억 원 규모의 기 금을 조성했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전시장에서 영감 얻는 방탄소년단 리더 RM "미술 책 확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에 1억 기부

국립현대미술관은 그룹 방탄소년단 (BTS) 리더 RM(본명 김남준)이 '아름다 운 미술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국립현 대미술관문화재단에 1억 원을 후원 기부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RM의 생일인 9월 12일을 기념한 선행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 출간 한 미술 도서를 중심으로 특히 절판돼 구 하기 어려운 도서 및 재발행이 필요한 도 서 제작을 후원한다. 제작된 도서는 도심 에서 먼 전국 400곳 공공도서관 및 도서산 간지역의 초·중·고 학교도서관에 기증하 고,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책방에도 비치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도서는 한국작가 도록 7종(김환기, 이 중섭, 변월룡, 유영국, 박래현, 윤형근, 이 승조)과 전시 도록 '내가 사랑한 미술관: 근대의 걸작', '미술관에 書: 한국 근현대 서예전' 중각 1권을 묶어 한 세트 8권으로 구성돼 총 4000권이 마련된다. RM의 지 원 도서는 도서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미술 책방에 10월 중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RM 씨가 평소 영감과 휴식을 얻은 미술 분야에 대



국립현대미술관 기획 '베니 스의 윤형근' 전시장을 찾은

케줄에도 미술관을 종종 찾아 미술 관심 확대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RM 씨와 함께 우리 미술 책 읽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

다"며 "바쁜 스 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ksh@

메르세데스-벤츠, 50개 의료기관에 코로나 진료 부스 기증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사 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재단과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국 50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 '워크스루' 방식의 감염 안전 진료 부스 50대를 기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증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메 르세데스-벤츠와 함께, 함께 더 건강하 게'캠페인의 하나로, 코로나19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진, 의료기관을 돕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 해 진행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대 한병원협회 및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 래재단과 함께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한 후, 하루평균 검사 인 원수, 보유 병상 수 등의 기준에 따라 전국 14개 시도 내 총 50개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인사

-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전보 △국 민고충 긴급대응반장 김석준 △기업고충 민원팀장 원영재
 - ◆한국저작권위원회 △사무처장 김파중
- ◆한국전력 ◇상임이사 선임 △경영지 원총괄본부장 이현빈

▋부음

▲김용길 씨 별세, 김찬곤(하이투자증 권 울산지점장) 씨 부친상=14일, 울산 남 구 좋은삼정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6일 오전 6시30분, 052-220-7799

▲태인기씨별세, 태일준(SK텔레콤이 사)·영혜(전 서울시립대 교수) 씨 부친 상, 노성진(버슘머트리얼즈코리아 상무) 씨 장인상, 이현정(전 VISA 이사) 씨 시 부상 = 13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 호, 발인 16일, 02-3410-6917

▲이영완 씨 별세, 이민호 씨 부친상 = 14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 인 16일 오전 6시, 02-3010-2000

추창근 칼럼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끊임없는 논 란이 이어지지만 정답은 없다. 더 나 은 기업성과를 목표로 한다면, 좋은 경영실적을 내는 것이 최선의 지배구 조다. 어떤 지배구조를 갖든 기업이 미래를 위해 자율로 판단하고 결정해 야 할 영역이다. 국가권력이 하나의 잣대로, 편향된 이념적 접근으로 강제 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

삼성 지배구조 허물기, 무얼 위한 건가

'공정경제'를 내세운 거대 여당과 정부 의 입법 폭주다. 대기업 규제 일색이다. 경 제계가 한목소리로 수십 차레나 부당성을 호소했던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 룹감독법제·개정안)은국무회의까지통과 했다. 21대 국회의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3개월간 여당이 쏟아낸 반(反)시장・반기 업 의원입법안만 200개가 넘는다. 코로나 19 위기와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기

에도 힘겨운 기업들의 위기감 절박하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법 가운데 보험업법 개정안이 있다. 현행 법은 보험사가 다른 회사 주식·채권을 보유할 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게 한 다. 개정안은 여기의 취득원가를 시장가격 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주식의 현재 가 치를 자산운용에 반영하는 게 공정하다는 논리, 보험사가 특정 기업에 몰아서 투자 했다가 부실로 고객이 피해 보는 일을 막 자는 명분이다. 좋은 의도로 포장되기는 했는데 치명적인 독(毒)이 묻어 있다.

이 법에 걸리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 성화재 두 곳으로 특정된다. '삼성생명법' 으로 불리는 이유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삼성전자의 지배구조가 표적이기 때문 이다. 결국 '삼성 해체' 시나리오라는 얘기 가 나온다.

현재 삼성전자 주식은 국민연금이 11.1%, 삼성생명 8.5%, 삼성물산 5.0%, 이건희 회장 4.2%, 삼성화재 1.5%, 이재 용 부회장이 0.7%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 의 핵심 고리가 삼성물산이다. 이재용 부 회장은 물산의 17.5% 대주주이고, 물산은 생명의 19.3% 주주다. 요컨대 이재용은 물산→생명→전자로이어지는출자구조를 통해 20% 남짓한 지분으로 전자의 경영권 을 행사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 틀에서 삼성생명 을 뽑아내자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전자의 설립 초기인 1980년 주당 1000원 정도 가 격으로 지분을 인수했다. 원가기준으로 현 재 총자산의 0.18% 수준이다. 이걸 시세 로 바꾸면 얘기가 다르다. 전자의 비약적 성장으로 주식가치는 50배 이상 뛰었다. 지분가치는 삼성생명 자산의 10%에 육박 하다.

결국 삼성생명의 자산 3%를 초과하는 전자 지분을 대량으로 처분해야 한다. 삼

성화재 지분을 합치면 매각 규모는 20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걸 누가 살 수 있는 가? 삼성이 경영권을 지키려면 물산 등 계 열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팔거나 해서 인수해야 하지만 지주회사법 등의 제 약으로 현실성이 없다. 외국인의 먹잇감이 되는 경우는 최악이다. 지금도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은 헤지펀드인 블랙록의 5.0% 를 포함해 56% 수준이다. 막대한 배당금 지출에 따른 국부유출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들이 연합해 경영권을 위협해도 방 어가 불가능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 병 과정에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집요한 공격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이다.

국민연금이 최대주주가 될 공산도 크 다. 정부가 단 한 주의 주식도 갖지 않는데 최고경영자(CEO) 인사 등이 정권 입맛대 로 좌우되는 KT나 포스코 같은 주인 없는 기업으로 만드는 시나리오 그대로다. 보험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한국의 최우량 기업인 삼성전자 주식을 보 유하는 것 말고 보험사의 더 나은 자산은 용이 또 어디에 있나.

이게 보험업법 개정안의 실체다. 삼성 지배구조를 허물기 위한 시도는 어제오늘 의 일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9대, 20 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 다가 무산된 후 이번에 반드시 관철할 기 세다. 막을 방법이 이번에는 없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수출의 20% 이상 을 홀로 감당한다. 제조업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떠맡고, 주식시장 시가총액 비중은 30%대다. 대한민국 법인세의 20% 정도를 책임지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 이 이어지지만 정답은 없다. 더 나은 기업 성과를 목표로 한다면, 좋은 경영실적을 내는 것이 최선의 지배구조다. 어떤 지배 구조를 갖는 기업이 미래를 위해 자율로 판 단하고 결정해야 할 영역이다. 국가권력이 하나의 잣대로, 편향된 이념적 접근으로 강제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 삼성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일궈낸 경이적 성공이 지금 오히려 족쇄이자 저주(咀呪)의 대상이다. 한국 경제에 대한 이 자해(自害)행위는 누 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가. kunny56@

정책발언대





시인 장석주는 '대추 한 알'에서 태풍, 천둥, 벼락, 무서리, 땡볕 등의 시련을 견 뎌야 대추 알이 붉어지고 둥글어진다고 했 다. 코로나 태풍이 우리 전시업계와 수출 기업을 강타하고 있다. 우리 수출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두바이 월드엑스포나 하노 버 산업박람회와 같은 해외 전시회가 풋대 추 떨어지듯 우수수 취소되거나 연기되었 다. 세계전시산업연맹(UFI)에 따르면 올 해 전시회 개최는 작년보다 60% 감소해 전시·관광과 연관된 피해가 1800억 달러 에 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190만 명의 일자 리가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 정부는 '전시회 방역관리지침'을 마련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 난 5월 세계컨벤션센터협회(AIPC), 국 제회의컨벤션협회(ICCA),세계전시산업 연맹(UFI)이 공동으로 마련한 '모범실행 지침(Good Practice Guidance)'에서경 기 고양 킨텍스를 '방역모범전시장'으로

수출 대추 한 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언급하면서 우리니라의 'K 방역'을 극찬 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는 오프라인 전시회를 365일 비 대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바꿔 놓았다. '바이오 USA 전시회'와 '홍 콩가정용품전시회'가 온라인으로 열렸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 확대될 것이다. 세계 적 컨설팅 업체 AMR International은 2018년 전시회가 과거 1.0 단계인 판매 채 널에서 현재 1.X 단계인 비즈니스와 지식 공유의 장을 지나서 미래 2.0 단계인 디지 털 기반의 365일 가치창출의 장으로 진화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예견이 코로나 로 인해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도 이달 3일 업종별로는 국내 최초 로 '섬유 온라인 상설 전시관'을 개관했 다. 텍스트, 사진 제공 등 기존 전시 콘셉 트에서 벗어나 3D 가상 아웃핏의 360도 회전 영상까지 제공하고, 바이코리아 (BUY KOREA) 플랫폼과 연동해 온라 인 화상상담, 결제 및 배송까지 연결해 온 라인 수출에 최적화했다. 우리 섬유 온라 인 전시관은 365일 24시간 시·공간 제약 없이 언제든지 소통해 비대면으로 수출 판 로의 가치를 창출하는 장이 될 것이다. 또 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자, 스마트홈, 바이오헬스,화학,기계,로봇,신재생에너 지, 조선, 자동차 등 10대 업종별로 차별화 된 온라인 상설 전시관을 순차적으로 개관

일부는 코로나가 사라지면 오프라인 전 시회의 기능을 일부 보조하는 수준으로 전 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흔히 온 라인은 레몬시장(저품질 거래시장)에 비 유한다. 구매자는 온라인 전시관에서 구경 만 할 뿐 거래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하지만 섬유 온라인 전시관이 마치 방 문객이 오프라인 전시회에서 관람을 즐기 는 것처럼 바이어는 직접 원단을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보지 않아도 색상, 광 택, 표면 질감, 유연성 등을 온라인에서 확 인할 수 있도록 해 본래의 전시 목적을 충 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온라인에 서도 레몬 시장이 아니라, 복숭아 시장(고 품질 거래시장)으로 나갈 가능성이 충분 한 것이다.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우리 수출 기업 도 비대면 온라인 수출을 본격적으로 준비 할 시점이다. 정부는 코로나 뉴노멀 시대 에 새로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고, DNA (Data·Network·AI) 기술을 활용한 수 출 체질개선을 위해 '비대면・온라인 수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오프라인 중 심의 지원 사업과 법·제도를 비대면·온라 인까지 확장해 그간 오프라인 수출에 익숙 했던 중소기업도 온라인 수출을 손쉽게 활 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수출 지원 체계를 완비할 것이다. 기존 수출기업들은 물론 스타트업,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까지 온라 인·비대면 수출 전선의 전면에 나서게 함 으로써 현재 약 10만 개 수준에서 정체된 우리니라 수출 기업 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다. 태풍, 천둥, 벼락 등 코로나 역경 을 수출 기업들이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리 나라 수출 전선에서 붉고 둥그런 대추 알 들이 주렁주렁 열리기를 기대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프랑수아 드 라 로슈푸코 명언

"겸손은 남의 칭찬을 싫어하는 듯이 보 이지만, 사실은 넌지시 칭찬받고 싶다는 욕망에 불과하다."

프랑스 작가. 504개 잠언이 실린 '잠언 과 성찰'이 대표작. 파란만장한 역경을 겪 은 그는 "우리의 미덕이란 가장 자주 위장 되는 악덕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도 남겼 다. 오늘은 그의 생일. 1613~1680.

☆ 고사성어 / 도방고리(道傍苦李)

쓸데없어 버림받는다는 말이다. 모두가 버리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뜻. 죽림칠 현(竹林七賢) 중 하나인 동진(東晉) 사람 왕융(王戎)이 어린 시절, 동네 아이들이 오 얏나무 열매를 따러 갈 때 그는 가지 않았 다. 지나던 이가 안 따라가는 이유를 묻자 그가 한 대답. "길가에 있는데, 아직도 저렇 게 열매가 많이 매달려 있는 것은 틀림없이 써서 먹지 못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들이 열매를 따보니 그의 말대로 먹을 수 없었다. 출전 세설신어(世說新語).

☆ 시사상식 / 펠츠만 효과

미국에서 운전자 사망사고를 줄이려고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자 사고가 줄었 다. 그러나 사망사고 위험이 줄었다고 생각 하는 운전자들의 방심 운전이 늘면서 보행 자 사고가 늘었다. 이 개념을 제시한 경제 학자 샘 펠츠만의 이름을 딴 것으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할 때 일 치원적 시각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차 원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 속담 / 귀신도 떡 하나로 쫓는다 아무리 사납고 악독한 사람이더라도 진 실로 친절하게 대하면 해치지 않는다.

☆ 유머 / 사형수의 소원

때는 겨울. 교도관이 "사형 집행 날이 다 가오니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라고 하자 사형수가 "딸기가 먹고 싶어요"라고 했다. 교도관이 "지금은 겨울이라서…"라며 말을 잇지 못하자 사형수가 내민 타협안. "그 럼, 착한 내가 봄까지 기다려 주겠소."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절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눈가리개를 벗으면 안 돼, 알았지?"

2018년 개봉한 영화 '버드박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대사다. 눈을 뜨고 집 밖을 바 라보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괴현상 속 에서 주인공 맬러리는 두 자녀와 함께 살아 남기 위한 사투를 벌인다. 지옥 같은 상황에 서 이들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눈가리개다.

이 이야기는 마스크에 의지해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살 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무척 닮아 있어서 더 욱 몰입하게 된다. 가끔 영화는 눈가리개 를 한 주인공의 시선을 연출하기 위해 카메 라에 검은 천을 씌워 비춰주는데, 밖을 나 설때마다마스크를써야하는현실과겹치 면서 숨이 턱턱 막혔다. 스크린 안에서도,

기자수첩



변효선 국제경제부/hsbyun@

버드박스에서 살아가는 법

스크린 밖에서도 우리는 원인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원인 불명의 무언가에 의해 삶의 일부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영화와 달리 마스크 착 용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해 12월 말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계는 마스크

(02)799-2648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듯싶다. 세계 곳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정부의 대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린다. 정부의 마스크 수칙 강제가 개인의 자유를 훼손한 다는 주장도 나온다. 마스크를 열 겹 가까 이 쓴 듯 가슴이 갑갑하다. 고속도로를 달 리면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자유를 주

주필 추창근

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권리로 받아들일 사 람은 아무도 없다.

영화 '버드박스' 속 주인공 일행은 역경 을 헤치고 '안전 가옥'에 도착하는 데 성공 한다. 밖에는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는 악 령이 존재하지만, 이곳에서 이들은 새를 풀어줄 수도, 자유롭게 뛰어놀 수도 있다. 하지만 카메라가 비춘, 둥근 철창으로 된 이곳의 천장이 어쩐지 버드박스(새장)와 닮아 있다. 행복해 보이지만 여전히 밖을 자유롭게 나갈 수도, 그곳에서 세상을 바 라볼 수도 없는 현실.

2년 전 영화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눈가리개를 벗어선 안 된다고. 완전히 자 유롭진 못하지만 안전하고 행복한 버드박 스가 있다고.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v.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논설실 (02)799 - 2669

IT중소기업부 (02)799-2646

자본시장부

정치경제부

(02)799-2663 (02)799-2665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편집인 **김상철**

사회경제부 부동산부 뉴스랩부

(02)799-2612 (02)799-2637 (02)799-2664 국제경제부 (02)799-6741 (02)799-2644 탐사보도팀 (02)799-2643

편집국장 김종훈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02)784-1003 팩스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math>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집단지성의 반지성적 결론

영국 과학자이며 우생학 창시자인 프랜 시스 골턴이 여행 중 시골의 가축 품평회 행사에 갔다. 여기서 소의 무게를 알아맞 히는 대회가 열렸다. 사람들이 표를 사서 자기가 생각하는 소의 무게를 적어 내 가 장 근접한 사람에게 소를 상품으로 주기 로 했다. 정확히 맞힌 사람은 없었다. 그 런데 800개의 표 중 숫자를 판독하기 어 려운 13장을 제외하고 787장의 표에 적힌 무게를 평균했더니 1197파운드였다. 실 제 측정한 소의 무게는 1198파운드였다. 군중을 한 사람으로 보면 완벽한 판단력 이다.

고(故) 신영복 교수는 자신의 저서 '담론'에서 이 사례를 전하며 "함께는 지혜다"라고 했다. 이른바 '집단지성'이다. 집단예측이 개인 예측보다 10~25% 정확하다고 한다.

집단지성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당연한 전제조건이 있다. 우선 갑남을녀(甲男乙女)가 모여서는 안 된다. 지성이 모여야 한다. 가축 품평회에서 거의 완벽하게 소의 무게를 맞힐 수 있었던 것은 대회에 참가한 이들이 소에 대한 일정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조건은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평균치(합일점)를 찾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정이다. 만약 행사 주최자가 소의무게를 예측한 787표 중 임의로 하위 또는 상위 40% 의견을 무시했다면 올바른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집단지성'

데스크칼럼

부국장 겸 산업부장

박성호



의 힘이 실리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 게 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최저임금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을 달성하기 위해 취임 초 2년간 각각 7.3%, 16.9%나 인상했다. 온전히 최저임 금 인상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소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게 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급등한 최저 임금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3차와 4차 연도 최저임금은 각각 2.87%, 1.5% 인상하는 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4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결국 박근혜 정부와 비슷해졌다. 지난정부들과 같이 매년 5~8% 수준으로 예측할 수 있게 올렸으면 부작용이 덜했을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이 모였지만 합일점을 찾는 과정이 정부 코드 맞추기에 치우쳐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이었던 탓이다.

최근 산업계 주요 업종단체 26곳이 모여 제5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겉모양새는 포럼이었는데 내용은 상법·공정거 래법 개정 규탄대회였다.

산업계는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재산권 침해, 투기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 어 능력 저하, 소송리스크 등 기업 입장에 서 큰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수차례 공 식, 비공식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국무회의는 원안을 그대로 통과 시켰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과반을 점한 여당이 있으니 뒤늦게라도 개정안에 대한 첨삭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위헌 시비가 나올 정도로 임대인의 재산권을 대폭 제한한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충분한 논의와 상대방의 의견 청취를 거친 결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 부 경제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지성이 모 였지만 같은 생각만 가진 이들이었다. 다 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이 말할 때 문재인 정부는 눈만 뜨고 귀는 닫았다.

말과 당나귀를 근연종(近緣種)이라고 한다. 생물을 분류할 때 쓰는 용어인데 유 연관계가 깊은 종을 의미한다.

암말과 수탕나귀가 교배해 새끼를 낳은 것이 노새다. 노새는 유전적으로 열성형 질을 가지고 있어 불임 등으로 후손을 남 기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컷 노새 는 정자가 없는 불임이다. 암컷 노새의 경 우 아주 간혹 말 혹은 당나귀와의 교배로 수태할 수 있지만 흔하지는 않다.

정부와 여권은 지금부터라도 대화하기 즐겁고 편한 사람들과 자리하는 걸 삼가 고, 마주보기 불편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활짝 열어야 한다. 그래야 지성이 모 여 반지성의 결론에 도달하는 실수를 줄 일 수 있다. vicman1203@

사설

코로나 여전히 살얼음판, 방역 경각심 더 높여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부터 2단계로 완화했지만 살얼음판의 긴장이 더 높아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109명들어 누적2만2285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해외유입 11명을 제외한 98명이 지역감염이고, 서울(41명)과 경기(30명), 인천(10명) 등 수도권확진자가8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일부터 100명대로 낮아진 뒤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진정되고 있다고 보기힘들다. 13일(121명)과 14일 확진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주말 검사 건수가 평일의 절반 이하인 각각 7000명대에 그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풀이된다. 언제 확진자가 급증할지아슬아슬하다. 수도권 중심으로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의 집단감염이이어지고방문판매업과 직장, 소모임의 감염도 잇따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방역단계를 낮 췄다.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 다. 2.5단계의 방역조치로도 음식점 과 카페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 각하게 커졌다. 2.5단계가 적용되면 서 영업이 제한된 9월 첫째 주 서울 소상공인 사업장의 평균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정도로 급격 히 줄어든 통계도 나와 있다. 방역단 계 완화는 더 이상의 경제 피해를 줄 이려는 고육책(挡肉策)인 셈이다. 그럼에도 성급했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단계로의 완화는 사람들이 모이는 매장과, 학원·체육시설·PC방 등 집합시설의 제한적 운영을 허용한다. 국민들의 경각심을 떨어뜨리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을 촉발할 위험성이 크다. 특히 곧바로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시점의 방역단계 완화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방역의 고베를 풀어놓으면서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고 호소한다. 오히려 위험성만 높아지고 있다. 추석 이전까지 코로나 19 감염 증가를 확실하게 통제하지 못할 경우, 이후 폭발적 확산세를 걷잡기 어려운 최악의 사태로 번질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 상황의 악화는 경제에도 더 심한 충격으로 이어진다. 많은 전문가들이 좀 더 고통스럽더라도 방역단계 하향은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이유다.

지금도 소규모 집단감염은 계속되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20%를 넘고 있다. 감염병 확산이 정부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방역조치의 단계를 낮췄지만 불안하기 짝이 없는 국면이다. 국민 스스로 조금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됐지만 오히려 개인 위생관리와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더 절실해졌다. 정부든 개인이든 자칫 방심해 코로나19가다시 재확산하는 사태는 반드시 막아야한다.

박병립의 중립, 직립



정치경제부 부장대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2년 만에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내우외환의 위기 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걱 정이다.

재난지원금으로 내수 등이 반짝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2~4월 3개월 연속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소매판매 증가율은 5월 1.7%, 6월 6.3%로 회복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종료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축소된 7월엔 0.5%로 둔화했다. 8월 이후에도 지표가 개선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코로나19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글로벌 수요 위축, 국내 수출·제조업 부진, 외부활동 위축과 이에 따른 소비·서비스업 생산 부진이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수출은 올해 3월 이후 7개월째(9월은 1~10일 기준) 감소세를

한스밴드 '오락실'과 BTS 'Dynamite'

이어가고 있다. 4~6월엔 두 자릿수 큰 폭의 감소로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줬다. 7월엔 감소폭이 7.1%로 축소됐으나, 8월에는 9.9%로 다시 확대됐다.

8월 수출 감소가 한 자릿수에 그쳤고, 중국(-3.0%)과 미국(-0.4%), EU(-2.5%) 등 3대 수출시장으로의 감소폭이 줄었단 점이 다행스러운 점이다. 또 상반기 한국의 세계 교역 순위는 8위를 기록, 주요국의 상반기 실적이 모두 부진한 가운데 우리 수출과 교역은 상대적으로 선전함에 따라 8년 만에 1단계 상승한 것도위안이다.

특히 이 같은 수출 부진의 장기화로 국내 제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6월 0.5%까지 축소됐던 제조업 생산 감소폭(이하 전년 동월 대비)이 7월 다시 -2.4%로 확대됐고, 재고는 축소됐으나 전월 대비로는 6월 1.0% 감소에서 7월 0.2% 증가로 전환됐다.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끝을 알수없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형국이니 답답하고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취업을 못 하는 청년들의 상실감 은 말로 다하기 어려울 것이다. 'IMF 세 대'란 말이 있다. IMF 외환 위기 당시 우리 경제는 큰 어려움에 부닥쳤고 당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던 청년을 지칭하는 말이다. 또 많은 가장이 직장을 잃기도 했다. 실직한 가장을 소재로 1998년 한스밴드의 '오락실' 노래가 대중적 인기와 공감을 얻었던 것만 봐도 당시 상황을 짐작할수 있다.

지금의 청년은 '코로나 세대'가 돼 고용 가뭄의 가시밭을 가고 있다. 올해 고용동 향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3 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 다. 연령대별로는 사회 초년생인 20대와 경제 허리인 30·40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 단 점도 걱정이다.

하지만 여명이 오기 전 가장 어둡듯이,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 BTS의 'Dynamite'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 다. 별, 다이아몬드, 다이너마이트 등 우 리 모두가 '빛나는 존재'란 점을 상기시키 며 희망을 주는 노래다. '오락실'의 시험 을 망친 나와 실직한 아빠, 'Dynamite' 의 별과 다이아몬드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모두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riby@

우리말 한 토막

고수부지와 둔치, 강턱

"계속된 폭우로 서울 한강시민공원 인 근 고수부지가 물에 잠겼다." "소 한 마리 가 집중호우로 80km가량 떠내려가다 밀양 시 아촌마을 낙동강 둔치에서 구조됐다."

올여름 장마는 기상청이 관측한 이래 가장 긴 장마이자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 여러 날 내린 비로 불어난 물이 미처 줄어들기 전에 폭우가 다시 이어져 하천이 범람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첫머리 예시문 역시 장마 기간 뉴스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보통 우리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고수부지'와 '둔치' 가 눈에 띈다. 이 두 단어는 동의어일까.

고수부지(高水敷地)는 '큰물이 날 때 만 물에 잠기는 하천 언저리의 터'를 말한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 사전에 등재돼있지만, 일본식 한자어이다. 고수공사(고 스이코지・こうすいこうじ・홍수를 막기위한 하천 제방공사)의 고수와 부지(시키지・しきち・터)를 조합한 일본어투 표현으로 일본어 사전에도 없는 말이다. 순우리말 중에 물가의 언덕을 뜻하는 '둔치'라는말이 있는데, 국립국어원은 고수부지의

순화어로 둔치를 쓰도록 권했다. 둔치는 '강, 호수 등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다만 고수부지를 둔치로 대체하기에는 의미상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의 보완으로 국립국어원은 둔치 외에 '둔치 마당' '강턱'도 제시했다. 한강의 경우 둔치를 다듬어 놀이나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든곳이 있는데, 이를 '둔치 마당'이라고 한다. 또 '큰물이 들거나 수위가 높을 때에만 잠기는 강변의 턱진 땅'은 '강턱(江턱)'이라고 한다. 강턱은 큰비가 오지 않으면 평소에 물이 없기 때문에 사전상 의미를 살펴보아도 고수부지가 가리키는 곳에 가깝다.

둔치는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를 뜻하는 말이므로 강가, 호숫가뿐 아니라 바닷가도 둔치라할 수 있다. 반면 강턱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 강에 한정돼 있는 말이다. 고수부지 또한 강, 시내를 이르는 하천 언저리의 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고수부지의 대체어로 강턱이 더 맞는 말이겠다.

신미라 편집부 교열팀 차장 kleinkind@





삼성생명 FC, 지금시작해보세요 FC (Financial Consultant)는 기계인 인생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컨설턴트입니다

정착지원금을 받으세요

컨설턴트를 처음 하셔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2년간 지원금 제공*

*회사기준달성시지급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최대 13개월간 동행 매니저와 함께하는 코칭 프로그램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4개월 차고객 관리 교육 - 7개월 차상담 스킬 교육 - 13개월 차시장 확대 교육

전문가가될 수 있어요

보험부터 카드, 펀드까지 종합적인 금융 컨설팅 교육 제공



지원 상담 1588-3114



